

碩士學位論文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지도교수 현 승 환



제 주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국 어 교 육 전 공

최 영 숙

2002년 8월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최영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최영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승환

이 연구는 제주도 무속신화 중 「세경본풀이」를 텍스트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성을 검증하여 무속신화가 민속학이
나, 사회학, 또는 신화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예술로서 미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 문학적으로 연구가 가
능함을 보여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연구 방법은 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주의 방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또한 문학적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등장인물의 성격, 공간, 주제, 그리고 제주 여성과 자청비를 중
심으로 살핀다.

제 II장에서는 「세경본풀이」의 8개의 이본을 분석하여 기본형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기본형을 중심으로 3개의 아형으
로 나눠 각 이본들을 비교한다. 또 이 작품이 구현된 문학적임을 감안하여 가창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돋보이는 이본의 표현
상 특징도 살펴, 이본 결과로 삼는다.

제 III장에서는 구조주의 방법에 의거하여 텍스트를 분석, 요약하여 작품에 나타난 구조와 의미를 찾는다. 이 작품이 이
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로 나눠 살펴 본다. 그리고 각 구조에 나타난 의미와
이항대립구조(의미 작용의 기본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표면적 구조의 자청비와 이면적 구조의 자청비의 욕망과 갈등
을 분석한다. 그리고 구조에 나타난 기법과 함께 의미도 동시에 탐색한다.

제 IV장에서는 이 작품의 문학적성을 검토한다. 문학적성 검토 항목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공간, 주제, 그리고 제주 여성과
자청비로 나눈다. 각 항목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문예적 가치에 논의의 핵심을 둔다.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는 중요한 3
인물의 성격을 규명하여 문예적 가치를 알아보고, 또 공간 항목에서는 공간이동에 나타난 의미가 전승민과 가창자의 현실
주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규명하고, 주제 또한 구조의 이중성이 보여지듯이 양면성이 나타남을 보이면서 표면적 주
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눠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제주라는 지역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이 작품은 향유 주체가 제주 여성
임을 감안하여 제주 여성과 자청비의 문학적 공감소를 찾아, 제주 여성이 문학적 형상화로 태어난 자청비임을 밝힌다.

제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게 된다.

※ 이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II. 이본 비교	8
1. 이본 비교	8
2. 이본 비교 결과	25
III. 구조와 의미	36
1. 구 조	36
2. 의 미	57
IV. 문학성 검토	66
1. 등장인물의 성격	66
2. 공 간	81
3. 주 제	89
4. 자칭비와 제주 여성	94
V. 결 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5



표 목 차

<표 1> 이본 비교표	25
<표 2> 기본형 추출표	26
<표 3> 亞型 분류표	27
<표 4> 14 단락의 비교표	31
<표 5> 세경본풀이 구조표	42



<그림 1> 표면적 구조도	44
<그림 2> 표면적 구조의 옥망갈등도	47
<그림 3> 이면적 구조도	48
<그림 4> 이면적 구조의 옥망갈등도	50
<그림 5>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도	55

I. 서론

1. 연구목적

문학은 크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대별된다. 구비는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말’¹⁾이므로, 구비문학이란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말로서의 문학을 말한다. ‘전하여 내려오는 말’은 구연이 되기에 구비문학은 구연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연이라는 말속에는 가창자의 창의성과 망각을 같이 동반한다.

구비문학 중 하나인 서사무가는 무속신화이며, 동시에 구비서사시로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 전승되어 왔고 지금도 전승이 진행되고 있는 문학이다.

또 서사무가는 서사문학의 출발점을 마련한 무속서사시의 전승이라는 점에서 고대신화로부터 현재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사 문학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서사무가를 달리 본풀이라고 하며,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는 본풀이 많아 서사무가의 본고장이라 할 만하다. ‘신들의 고향’인 제주도는 일반본풀이뿐만 아니라 당본풀이까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구송 되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의 지역이다. 제주도의 큰곳은 우리 문학의 모태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 큰곳에서 불려지는 제주도 본풀이의 가치를 따지면 제주도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1997)에서 「21c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 조사 보고서」의 내용²⁾을 보면 제주도에 살면서도 제주도 서사무가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향후 제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제주도만의 특징적인 문화의 요소

1) 장덕순외(1999),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p.1.

2) 제주발전연구원(1997), 「21C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 조사 보고서」, p.59.

제주도 신화 및 전설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서 보면 삼성신화가 전체 29.2%고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김녕사굴 전설이 17.7%, 설문대 할망이 10.4%, 만덕할망이 7.3%, 오백나한이 5.2%, 산방덕 4.2%, 이어도 3.1%, 외돌개 3.1%, 절부암신화 3.1%, 향풍송의 비 2.1%, 자청비 설화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에 본풀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화의 고향에 살면서 제주도 본풀이에 대한 도민들의 무지는 곧 제주도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앙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기 때문이다.³⁾ 즉 본풀이는 제주 문화의 보고이다.

도민들이 제주도 본풀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풀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곧 한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높다. 그것은 지역 문화의 특성들이 모여 한 나라의 문화 특성이 되는 것이며, 지역 문화의 발전과 개선이 한 나라의 문화의 발전과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사건들의 진행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사건 진행의 주체로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이 사건 진행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인물들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 표현매체가 언어이기에 분명 본풀이는 문학이며, 문학이기에 예술로서의 미적인 가치체계가 있다. 따라서 본풀이의 문학적 측면의 연구는 무척 중요한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신화장이 중심된 의례라 해서 신화의례이며, 큰굿 때의 세경본풀이란 제차와 그의 멩감등 농신을 위한 굿에서 심방이 젓상 앞에 앉아 장고를 치며 부르는 것이다.⁴⁾

다른 제주도 본풀이에 비해 「세경본풀이」는 수많은 motif가 등장하고 다양한 삽화가 연결되면서 길고 재미있는 장편을 이루었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과 목축신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신화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농경신인 자청비라는 여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고 있는 점이다.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고난과 고통을 적극적인 자세로 이겨내어 하늘 옥황 문선왕의 자제 문도령과의 사랑을 쟁취했으며, 아울러 농신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내용의 무속신화이다.

앞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지도가 무척 낮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무지와 작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널리 읽혀지지 않고 소외되고 있다.

3) 문무병(2001),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pp.15~16.

4)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 신화 연구」, 집문당, p.192.

이 연구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문학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제주도 지역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도 문예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

오늘날 전승된 무속신화는 우리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국문학의 자료이므로 이 연구는 작게는 텍스트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으며, 크게는 국문학의 범위를 넓혀 우리의 문학 장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연구방법

제주도 무가를 포함하여 한국의 무속 체계가 학술적으로 주목되고, 그 자료가 채록되어 활자화까지 된 것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대에 日人 學者들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격적 연구 성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인 학자들의 연구들은 구전문학에 대한 선각적 인식과 자료 조사의 철저성 등 그 선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종교사회학적인 기초 연구였으며 따라서 고의적으로 왜곡된 점이 많이 발견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⁵⁾

그 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속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 주요한 업적에는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 최길성, 유동식, 서대석, 진성기, 현용준, 문무병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임석재, 장주근, 김태곤등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최길성은 사회 인류학적 측면에서, 유동식은 종교학적 측면에서, 서대석은 문학적 측면에서 각각 접근하려 하였다. 그 중에서 제주도의 무속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올린 것은 장주근의 「한국의 민간신앙」이다. 장주근은 제주도의 서사무가, 곧 무속신화를 그 무의와의 관련에서 포착하고,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그 무가와 무속의 지역적 특색을 해명하려고 했다. 이 연구는 무가의 문학적, 신화학적 연구에 주력한 면이 있어 무속 자체의 주술 종교적 본질이나 그 계통의 해명에는 분명한 해답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위의 연구 가운데 지금까지의 가장 현저한 경향은 한국 무속의 주술 종교적 성격과 그 역사적 기원

5) 한창훈(2001), “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백록어문」, 제 17집, p.97.

의 문제 해명에 대한 노력이었다.⁶⁾

제주도 신화에 대한 제주도 학자들의 연구는 현용준, 진성기, 문무병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연구들은 대부분 당본풀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민간신앙인 무속신앙을 이해하고자 한 것들이다. 이러한 당본풀이 연구는 국문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비교민속학, 사회민속학, 역사민속학으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며 본풀이의 채록과 분석을 토대로 한 당신앙의 신화학적, 민속학적 연구들에 제주도의 지역적, 자연환경이나 역사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⁷⁾

특히 이수자의 연구는 제주도 무속 의례 중 큰굿과 여기에서 불려지고 있는 신화들의 위상과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그래서 각각의 본풀이를 제의와 연관시켜 총체적으로 연구했다. 주지하다시피, 무가는 문학적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속 의례에서 구송 되는 노래이다. 따라서 무가의 연구에 있어서 무속 의례와의 상관을 살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무속 의례 중 큰굿을 중심으로 자료의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이수자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제주도 무가 자료의 꼼꼼한 독해 역시 이 논문의 미덕이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읽어내는 연구자의 노력에 비해, 이것을 해석해 내는 분석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만하고, 평면적인 서술, 현장 조사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 제의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⁸⁾

제주도 무속신화 중 「세경본풀이」를 연구한 이들은 조현희(1989), 윤교임(1995), 김화경(1982), 박경신(1986), 이수자(1990), 한창훈(1998), 좌혜경(1998), 김정숙(2000)등을 들 수 있다.

조현희는 “세경본풀이 연구-양산백전과 비교를 통하여”에서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축영대설화」가 중국내에서 형성 전과되면서 창이나 소설의 소재가 되어 강창문학의 많은 작품들을 산출시켰고 우리 나라에서도 「축영대설화」를 소재로 하여 「양산백전」이 탄생했으며, 서민들이 즐기던 문학 형태인 굿에서는 「세경본풀이」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경본풀이는 중국의 양축설화가 제주도 특성을 지

6) 현용준(1986), 전계서, p.17.

7)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8) 한창훈(2001), 전계서, p.106.

닌 것으로 변모 향토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재의 몇 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장르 전체의 발생까지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지며, 「세경본풀이」가 고대 서사문학의 시원으로서의 신화라는 면을 간과한 주장이라 보여진다.

윤교임은 “여성영웅 신화 연구-초공, 삼공,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무속신화는 우리 문화에 대한 메타 언어로서 중요한 몫을 한다고 보고 신화에 나타난 가부장제적 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여성 영웅신들을 통해 무속신화 텍스트가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무속신화 중 세 편만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이수자는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라는 논문에서 「세경본풀이」가 농경기원신화임을 신화학적으로 밝히고 있고, 신화형성집단의 여성인식을 살펴 문학사적 의의도 아울러 살펴, 세경본풀이가 여성중심 서사물의 시원적 성격을 가진 신화임을 주장하였다.

한창훈은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의 논저에서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신들은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는 제주도 서민 여성들의 생활상과 의식이 오랜 세월을 거쳐 무가에 투영된 결과라 했다. 그 외에도 자청비를 문화적 여성영웅으로 본 좌혜경의 논저도 있다.

박경신은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연구하여 제주무속의 특징을 찾아내었고, 김화경은 신화학적 고찰을 통해서 「세경본풀이」를 해석하였다.

김정숙은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에서 자연환경과 맞물리면서 본토와는 달리 제주도만의 고유하고 상대적으로 형성된 문화구조 안에서 신화와 여성원형을 살핀 것인데, 윤교임의 연구가 3편의 본풀이만을 가지고 한 것에 비해 김정숙은 제주도 신화 전체를 살펴 신화에 나타난 여성원형을 찾았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 외로 「세경본풀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주목할만한 연구자로 조동일과 김헌선을 들 수 있다. 조동일은 제주도 신화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원류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헌선 역시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제주도 신화와 한국 문학 여러 장르와의 관련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도 신화를 다루면서 동아시아의 구비서사시와 유사한 점을 밝히고 제주도 무속 신화의 가치를 드높였다.

위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학적, 민속학적, 신화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결과 문예학

적인 논의는 부분에 그쳤다. 서사무가가 주술이면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술과 예술이 함께 지나는 공통점 즉 '형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⁹⁾ 형상화에 있어서 언어로 형상화했다면 이미 서사무가는 문학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예학적 연구에 집중하려 한다. 기록문학의 연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구비문학을 연구하는 차원이 아닌 구비문학 자체의 문학적 예술성을 찾는 연구야말로 진정한 국문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위의 연구 업적들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서사무가 자체의 문학성을 찾는 연구가 부분에 그쳤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이미 문학의 형태로 자리잡은 무속신화의 문학성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국문학 입장에서 그 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리라 본다.

연구자는 문예적 가치를 검토하고자 먼저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수집하여 각 이본을 살피고 그 기본형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기본형을 토대로 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8편의 이본들을 아형으로 분류하여 각 아형의 특징을 찾아낸다. 「세경본풀이」는 무속신화로 구비문학에 속한다. 구비문학의 구연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고 창작이기도 하며, 이 創作이란 말은 이본 歌唱者들의 개성을 말함이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한 이본엔 그 개성이 녹아 있게 되고, 녹아 있는 개성들은 곧 그 이본들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이 되기에 몇 이본을 포괄하는 표현상의 특징도 아울러 살폈다.

신화의 형식을 연구할 때 신화는 제일 먼저 이야기로서 연구되며, 신화가 우선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은 그 자신의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같은 모양과 같은 종류의 다른 이야기이다.¹⁰⁾ 같은 모양과 같은 종류의 다른 이야기를 분류하는 연구 방법으로 문학에서는 구조주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사문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주의 역할은 매우 뚜렷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서사문학과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주의는 성격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사의 분야는 한편으로는 신화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데, 이들은 어떤 구조적 특성(인물, 상황, 행동, 해결)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구조주의자들에게 연구의 훌륭한 영역을 제공하였으며, 가장 발달된 분야가 되었다.¹¹⁾

9) 조동일(1980),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p.226.

10) 노드롭프라이(1987), 「문학의 구조와 상상력」, 이상우역, 집문당, p.122.

11) 김열규외(1982), 「민담학개론」, 일조각, p.179.

「세경본풀이」 역시 한 편의 무속신화이고 서사문학의 원형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구조주의 방법을 사용하여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파악한다.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작품의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피고, 아울러 구비서사의 담당층¹²⁾의 치밀한 구성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화는 그것이 언어로써 문학적 결구를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그것은 문학과, 따라서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또한 중요한 것¹³⁾이기에 「세경본풀이」의 문예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항목들을 등장인물의 성격, 공간, 주제 그리고 자청비와 제주 여성들과의 문학적 공감소를 찾는 연구를 통하여 작품의 문학성을 검토한다.

제주도 여성과의 문학적 공감소를 찾는 연구는 「세경본풀이」가 타지역에서는 불려지지 않았고 제주도에서만 향유되었고, 그러면서도 그 담당층은 남성과 여성이 공유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로 향유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속 의례를 준비하고 참여했던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경본풀이」를 향유하는 제주 여성들에게는 자청비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문학적 효과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여성과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의 공감소 형성은 신화에 대한 신성성이 쇠잔해지는 현대에서도 이 무속 신화가 은연중에 제주 여성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문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다.

12) 이 논고에서의 ‘담당층’이란 신화가 공동작이므로 신화를 전승하는 전승민과 가창자를 포함한 뜻으로 쓰임.

13) 현용준(1992), 전계서, p.359.

II. 이본 비교

1. 이본 비교

이 연구에서 논의할 구비서사시는 「세경본풀이」이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과 목축신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신화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여주인공 자청비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하였으며 어떤 경위로 마침내 농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많은 모티프와 삽화로 긴 일대의 장편서사시를 이룬 신화인데 현재 채록되어 발표된 「세경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 (가) 박봉춘 구연, 赤松智城, 秋葉隆 채록, 「朝鮮 巫俗의 研究」, (1937).
- (나) 안사인 구연, 현용준 채록,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1980),
- (다) 한행수 구연, 한국정신문화원 채록,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
- (라) 고대중 구연, 장주근 채록,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01).
- (마) 강을생 구연, 진성기 채록,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1991).
- (매) 이달춘 구연, 진성기 채록,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1991).
- (사) 강순선 구연, 문무병 채록,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8).
- (아) 한상수 개작, 「한국인의 신화」, (1980). <안사인본을 개작한 것으로 보임>.

연구자는 위에 제시한 총 8편의 이본을 자료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위의 이본들 중 (가), (나), (다), (매), (아)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선행 연구¹⁴⁾에서 (마)가 다른 이본들에 비해서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삽화도 다양하나 기본적인 내용과 그 순서는 (나)와 (아)가 원형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역사·지리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의 첫째 목표는 민담의 본래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변화라는 것은 사유나 공간의 일정한 범칙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민담의

14) 박경신(1986),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집.

類話를 비교하고, 그 역사를 소급하여 추구하고, 후일에 첨가된 것을 이야기 줄거리에서 모두 제거한다. 그럼으로써 민담의 여행유발 직전의 원형을 찾는다고 한다. 이 연구 방법은 민담의 바른 이해를 본질적으로 밝히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¹⁵⁾

선행연구는 위 연구방법으로 원형을 추정했는데, 모두 5편의 이본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결과이다. 하지만 원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풍부한 자료는 무척 중요하다. 자료의 풍부한 비교가 원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풍부한 자료의 비교들은 원형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이본들의 비교는 작품의 원형을 찾는 데 무척 중요하리라 보여지기에 선행 연구 외에 연구자는 (ㄹ), (ㅁ), (ㅂ)를 더 첨가하여 비교하려 한다.

선행 연구의 자료 중 (가), (나), (ㄷ), (ㄹ)은 공적이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ㄹ)에서만 공적의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공적은 바로 자청비가 하늘의 변란을 막아내는 것인데, 그녀는 그 공으로 오곡씨를 얻는다. 즉 작품 내에 공적이 있어야 신직을 얻을 수 있기에 공적과 신직의 연결은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세경본풀이」의 원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사건 진행순서와 공적, 그리고 그 공으로 신직을 얻는 것을 중시하여 (나), (ㄹ)을 원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선행연구 외에 더 첨가한 이본들은 모두 공적의 내용이 빠진 이본들이다. 즉 (ㄷ), (ㅁ), (ㅂ)에는 공적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4개의 이본엔 공적의 내용이 있고, 1개의 이본에만 공적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공적에 관한 내용 유무가 원형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전 8편의 이본에서는 공적의 내용이 보이는 이본에는 (가), (나), (ㄷ), (ㄹ)이고, 공적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이본도 4개인 (ㄷ), (ㄹ), (ㅁ), (ㅂ)이다.

이야기 전체로 보아서 중요한 근본 특징을 잇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잊어버리는 것은 이야기의 다른 부분과 그리 관계가 없어 그것을 빠뜨린다 해도 별로 눈에 띄게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이다.¹⁶⁾ 신화에서 신직이 중요한데 공적이 있어야만 신직을 얻게 된다면 공적의 내용은 이야기 전체로 보아서 중요한 근본 특징이 되므로 잇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위의 제시한 이본들 중 (ㄷ), (ㄹ), (ㅁ), (ㅂ)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앞의 선행 연구에서 원형을 추정하는데 공적과 함께 그 공적의 대가로 신직을 얻

15) 김열규외(1982), 전계서, p.98.

16) 상계서, p.90.

는 내용을 중시한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자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원형을 추정하는 일은 아니다. 단지 각 이본의 비교를 통해서 각 이본들에 나타난 이본상의 특징을 찾아 「세경본풀이」의 문학성을 찾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의 이본을 검토해 보면 (a)는 (a)를 다시 개작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원형에 가까웠을 것을 것으로 추정된 (a)와 (a)중 (a)를 중심으로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즉 (a)를 포함하여 총 8편의 이본을 비교하는데, 원형일 것으로 추정되는 (a)의 사건 진행 순서와 내용을 기준으로 1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이본들과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락 내용을 추상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백근에서 한 근이 부족하여 여자식으로 점지한다. <안사인본>, <고대중본>
- ㉡ 백근에서 한 말이 모자라서 여자 생불로 점지한다. <한행수본>
- ㉢ 백근에서 준준히 차지 못하여 여궁녀로 점지한다. <강순선본>
- ㉣ 동개남 상주절로 수록드리러 가다가 서개남금법당 소서증을 만난 것 때문에 한 근이 축남.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꿈 꿈을 스님에게 말하고 스님이 해몽하여 여자아이가 태어남을 스님이 예언한다. <이달춘본>
- ㉤ 동개남으로 가던 중 서개남 무광절에 가서 수록을 드리고 또 반근을 숨겨서 동개남은중절 육간대사가 여자아이를 점지한다. <강을생본>
- ㉥ 천석에서 한 말이 부족하여 딸아이를 점지한다. <한상수본>
- ㉦ 동개나무사에 수록을 드린다고 해 놓고 서개나무사에 가서 수록을 드려, 동개나무대사가 승시를 주고자 조화를 부려 하녀 정수덕이한테는 아들을, 부인 조진국 부인한테는 딸을 점지한다. <박봉춘본>

여기서 비교의 단위로 설정한 단락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하위단위로서 서사단락을 의미한다. 각 이본의 구체적 표현은 꼭 같을 수 없으며 꼭 같지 않는 행위나 사건의 공통성은 추상화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단락은 추상적 의미로 쓰였다.

위 내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선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성격을 추출하여 추상

화하면 “기자정성을 드렸으나 시주가 모자라서 여자아이로 점지”로 추상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상화된 단락에 의해서만 이본의 서사구조가 얼마나 같고 다른가 하는 것이 뚜렷해질 수 있다. 또 서사진행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 잡다한 구체적 표현은 추상의 폭을 넓혀서 묶더라도 전체적 서사구조의 성격은 왜곡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제시한 8편¹⁷⁾ 이본을 이와 같은 단락의 개념을 사용해 살펴본다.

8편의 이본들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모든 이본들에 존재하는 단락들을 추출하여 기본형이라 한다. 이 기본형은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본에서 보이고 있다. 모든 이본에 존재하는 단락들이니만큼 이 단락들은 무척 중요한 단락들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형식보다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본래의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연구자는 이 기본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본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8편을 살펴보면 위의 기본형만으로 된 이본도 있고, 또 어떤 이본은 이 기본형에다가 1-2개 단락들이 더 첨가된 이본들이 있다. 그 각 이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성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구성의 그룹을 亞型¹⁹⁾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각각의 아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각 아형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세경본풀이」의 문학성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이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화된 단락을 ‘1, 2, 3, 4, ……」로 하며, 각 이본의 구체적 단락은 ‘①, ②, ③, ④, ……」로 하였다. 이 구체적 단락에 대해 이본들 중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이본 내용만 기록하고 옆에 비슷한 이본을 기록하여 거의 같은 내용임을 밝힌다. 16개의 추상화된 내용 단락중 어떤 단락이 모든 이본에 다

17)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안사인본>.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고대중본>.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강을생본>, <이달춘본>.

赤松智城, 秋葉隆 (1937), 「朝鮮 巫俗의 研究」, 조선총독부, <박봉춘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한행수본>.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강순선본>.

한상수(1980),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안사인본을 개작한 것으로 보임>.

18) 김열규외(1980), 전계서, p.101.

19) 亞型이란 설화가 전승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변이형들 중에서 공통 화소를 포함하는 변이형의 묶음을 말한다. 이러한 아형은 전승자들이 설화에 대한 의식에 따라 구분된 공통된 묶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승환(1992),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pp.3~4.

보이면 모든 이본에서 이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으로 <모든 이본에 존재>라 기록하고, 또 모든 이본에 다 보이지 않고 몇 이본에만 보이면 보이는 해당본만을 기록한다. 또한 각 이본들의 표시는 구연자의 성명을 따르는데 만약 구연자가 ‘안사인’이라면 구연자의 성명을 따라 그 이본을 <안사인본>이라 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신화」에 나오는 「세경 할머니」는 한상수가 (내)를 개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한상수본>이라 따로 별칭을 둔다.

이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자 정성을 드렸으나 시주가 모자라 딸로 점지 <모든 이본에 존재>

이 단락은 자청비의 출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여자아이로 태어날 것을 미리 스님들이 예언을 하는데, 주로 시주가 모자라서, 그리고 서개남금법당 스님한테 수록을 드렸거나, 혹은 만난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박봉춘>본에서는 정수남이의 출생이 보여지는데 다른 이본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 ① 백근에서 한 근이 부족하여 여자식으로 점지한다. <안사인본>, <고대중본>
- ② 백근에서 한 말이 모자라서 여자 생불로 점지한다. <한행수본>
- ③ 백근에서 준준히 차지 못하여 여궁녀로 점지한다. <강순선본>
- ④ 동개남 상주절로 수록드리러 가다가 서개남금법당 소서중을 만난 것 때문에 한 근이 축남.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꿈 꿈을 스님에게 말하니 스님이 해몽하여 여자아이가 태어남을 스님이 예언한다. <이달춘본>
- ⑤ 동개남으로 가던 중 서개남 무광절에 가서 수록을 드리고 또 반근을 숨겨서 동개남 은중절 육간대사가 여자이래로 점지한다. <강을생본>
- ⑥ 천석에서 한 말이 부족하여 딸아이로 점지한다. <한상수본>
- ⑦ 동개나무사에 수록을 드린다고 해 놓고 서개나무사에 가서 수록을 드려, 동개나무대사가 승시를 주고자 조화를 부려 하녀 정수덕이한테는 아들을, 부인 조진국 부인한테는 딸을 점지한다. <박봉춘본>

기자 의례의 대상은 어느 이본이나 불교와 관련을 짓고 있다. 이는 불교가 유입된 이

후 불력(佛力)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에 대한 원불수륙으로 백근의 시주를 바랐으나, 한 근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한국인에게 남아 있는 결핍과 충족의 수의 의미를 보여준다 하겠다.

단군신화에 따르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굴속에서 백일동안 지내도록 하여 삼칠일을 지낸 곰이 여성으로 환생했다는 점에서 백은 남성을 의미하는 수라 여겨진다. 제주도의 '99 溪谷' 전설에서도 '1 谷'이 모자라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것도 백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결핍이고 미완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고어에서도 백은 '온'이라 하여 전체를 얘기한다. 따라서 이 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랐다는 점은 결핍과 미완성을 의미하기에 여성인 자청비가 태어나게 된다.

2. 이름을 자청비로 지음 <모든 이본에 존재>

이 단락은 이 작품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보이는 단락인데 모든 이본이 이름을 자청비라 하고 있고, 또 그 이름 뜻도 '자청하여 났다 해서, 요란하게 난 아기, 아기 가질려고 조자지고 공이 들어서' 등이다. 단 <박봉춘본>에서는 '일흠을 자청비라 짓고'로 나오고, <한행수본>에서는 '자청비가 솟아난다'로 표현되어 있다. 신격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점은 삼성신화에서도 보인다. 삼성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여 신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당계본풀이, 한라산계본풀이 등의 주인공들도 한라산, 또는 땅에서 솟아나고 있다. 즉 제주도의 무속서사시 전승민들은 신의 출현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인간이기에 앞서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주인공 이름에 있어 모든 이본이 '자청비'라 한 것은 이 작품이 전승과정에서 많은 누락이나 변형을 겪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3. 문도령과의 만남과 남장으로 3년 동거, 그리고 이별 <모든 이본에 존재>

이 단락은 자청비와 문도령과의 만남이 나타나는 부분과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가 3년 동거하는 부분, 그리고 문도령과의 이별로 세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이 세 부분의 내용이 다 존재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연 차이점이 드러난다. 여기서 두 남녀의 만남과 문도령의 혈통, 그리고 남장으로 동거, 마지막으로 이별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려 한다.

① 정술덕이한테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묻고 주천강에 빨래를 하러 가서 문도령을 만난다.

<한상수본>을 제외한 이본에서 하녀에게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묻고 빨래를 하러 간다고 나오고 있다. 또 장소도 ‘주천강 연못’인데 <박봉춘본>은 ‘영방축지’로 <강을생본>은 ‘뒤틀당 연하못’으로 되어 있다.

<한상수본>에서만 ‘물을 길러 나갔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장소의 언급이 없다. 이는 구연자의 본을 다시 개작한 결과인 것 같다.

여하튼 문도령과 만남의 장소가 물이 있는 곳이란 점은 모두 공통점이다.

② 문도령은 하늘의 존재다.

<안사인본> - 하늘 옥황 문국성 아들 문왕성 문도령

<이달춘본> - 하늘 옥황 문국성 문도령

<강을생본> - 하늘 옥황 문선왕 아들

<고대중본> - 하늘 옥황 문수문왕 아들 무낭성 문도령

<박봉춘본> - 하늘 옥황 문관선 문도령

<강순선본> -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

<한행수본> - 하늘 옥황 문황성 문도령

<한상수본> - 옥황상제문국성의 아들 문황성 문도령

각 이본을 살펴봐도 자청비의 상대역으로 등장한 ‘문도령’이란 이름은 모두 같고, 또 혈통이 하늘의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자청비가 남장을 하여 문도령과 동거

모든 이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청비가 오라비로 남장하여 문도령을 따라가서 그와 함께 같이 기거를 한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자청비가 문도령보다 훨씬 앞선다. 자청비가 여자임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도령이 의심한 경우도 있고, 소장이 의심한 경우도 있다. <강을생본>은 소장이 의심을 하여 오줌갈기기, 달리기, 씨름 등을 시켜보기도 한다. 단 <박봉춘>과 <고대중본>에서는 시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이본에서는 오줌갈기기, 글짓기, 활쏘기등이 나타나고 있다.

④ 문도령과의 이별의 원인

이 단락은 문도령이 편지를 받고 떠나자 자청비도 같이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신의 여성성을 표출하고 문도령과 같이 밤을 보낸 후 그와 본매를 나눠 갖고 이별하게 되는데, 동문수학하는 중에 문도령의 부모한테서 온 편지가 이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이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 <강을생본>, <안사인본>,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 <한상수본> - 서수왕따님애기한테 장가 가라는 편지를 받고
- <이달춘본> - 서와말갯떨아기 구했다고 (먼저 문도령이 편지 부치게 함)
- <박봉춘본> - 자청비가 먼저 가겠다고 함 (혼사얘기가 없다)

다른 본들은 이별의 원인이 명확하다. 하지만 <박봉춘본>은 이별의 원인을 설정하지 못해서 뒤의 부분에서 ‘문도령은 약 삼개월간 춘몽을 꾸다가 일일은 작별하겠다 하면서’라고 처리하고 있다. 사건진행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 ③ 단락은 「양산백전」²⁰⁾에도 보이는 단락인데,

㉠ 양산백과 남장을 한 추양대가 운향사에서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한방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다가 서로의 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불전에서 맹세를 하고 서로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 염천에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폭포에 가서 목욕하자고 하니 추양대가 마지못하여

20) 김기동·전규태(1984), 「양산백전-한국 고전 문학 100선」, 서문당, pp.13~14.

따라 가서는 위쪽에서 따로 하는 것을 보고 양산백이 추양대를 여자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의 내용은 「양산백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추양대라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운향사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양산백이라는 남자를 만난다. 그리고 양산백은 추양대가 남자인줄만 알고 있다가, 목욕을 같이 하지 않으려 하고, 추양대가 겨우 수족만 씻는 것을 보고 여자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양산백전」에는 두 이본이 전하는데 ‘한남서림본’과 ‘세창서관본’이다. 이 논고에서 자료로 쓴 「양산백전」은 ‘한남서림본’이라 소피대기가 없다. 하지만 ‘세창서관본’에는 여자임을 의심한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소피대기를 하자고 하고는 그 시험에서 진다.

「양산백전」의 위의 내용과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거무선생한테 가서 공부를 하다가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임을 의심해서, 달리기, 씨름, 오줌누기 시험을 하는 내용과는 유사하다. 이런 소재의 유사점으로 인해서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비교연구²¹⁾들이 있어 왔다.

4. 문도령을 기다리다가 정수남이의 땀에 빠지고 정수남이를 죽이게 됨

<모든 이본에 존재>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별 후 그를 기다리다가 정수남이가 산에서 문도령을 봤다고 거짓을 고하자, 이를 사실로 믿고 그를 따라 산에 갔다가 조롱과 농락을 당한다. 그의 능욕을 채치로 넘기다 속은 것을 안 정수남이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자 그를 죽인다.

죽은 정수남이가 부엉이로 환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박봉춘본>과 <강순선본>에 서만 보인다. 이는 후에 사건진행에 있어 긴요한 것이다.

이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때 자청비는 칼을 들고 정수남이 귀를 향하여 한 번 찌르니 적혈이 흐리는 동시에 좌이로는 벽국새가 나고 우이는 봉영이가 나리 가드라. <박봉춘본>
- ② 은즈봄을 내어 놓아서 느단 귀로 왼켈레레 찢러부난 정수남이는 죽었더라. 부엉새

21) ① 서대석(1968),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제 8집.

② 장주근(1972), “서사무가의 신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문화인류학』, 5집.

가 나왔구나. <강순선본>

그리고 아래 내용은 후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꽃밭에 해를 주는 부엉이를 잡는 내용인데,

① 「정수남아, 정수남아, 혼정이 있건 부엉새 몸으로 환생허영 원진 나 젓가심 우의 나 올라 앓아보라.」 조금 있으니 하늘로 부엉 부엉 놀아완 젓가심 우의 올라 앓이 난... <안사인본>

<박봉춘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들에서 자청비가 옷을 모두 벗고 물팡돌 위에 누워 있으면 부엉이가 올라앉고 이 때 자청비는 부엉이를 잡게 된다. <안사인본>에서는 위와 같이 정수남이의 혼을 불러들이고, 그 환생이 부엉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수남이가 죽어 부엉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사람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남 <모든 이본에 존재>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혹은 사람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단락이다.

6.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구함 <모든 이본에 존재>

남장을 하고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그 곳에서 해를 주는 부엉이를 잡아주는 공로로 그 곳 꽃감관 말쑤딸아기와 결혼을 하여 꽃을 훔친다.

단 <박봉춘>본에서는 ‘수야로 힘들어 그 새를 잡는다’고 나온다. 이 때 ‘새’는 부엉이임을 앞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① 꽃감관의 셋째 사위가 된다. <강을생본>, <안사인본>, <강순선본>, <한행수본>, <한상수본>, <고대중본>

② 과거 본 후 장가 가겠다고 한다. <이달춘본>, <박봉춘본>

7. 환생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리고 집으로 돌아오나,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집에서 쫓겨남 <모든 이본에 존재>

<강을생본>을 제외한 이본들에서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집에서 쫓겨나자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서천꽃밭에 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후에 문도령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가져와 문도령을 살린다. 물론 이 때의 차이점은 정수남이를 살릴 때는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살릴 때는 자청비가 천상의 존재이므로 남장을 안 하고의 차이이다. 즉 정수남이를 먼저 살리고 후에 문도령을 살린다.

① 자청비가 오곡씨를 모두 얻어 내려오다가 정수남이 죽은 데로 가서 정수남이를 살리고 집으로 가니 그녀의 부모님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살리느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 <강을생본>

그런데 위의 ①의 내용에서와 같이 <강을생본>에서만 정수남이가 죽고 한 참 후에 문도령이 죽는데 문도령이 죽은 후 서천꽃밭으로 향하여 꽃을 얻고 문도령을 살린다. 이때까지도 정수남이를 살리는 내용은 보이지 않다가 그 후 오곡씨를 갖고 지상에 내려왔을 때야 정수남이를 살린다. 이런 이유로 사건 진행 순서가 다른 이본들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제주도 무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대목까지도 싸움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강을생본>과 같은 순서로 본을 푸시는 분들은 다음의 이유를 대고 있다.

“양반보다 쌍놈을 먼저 살릴 수는 없는 거라”. <김씨(여무), 77세, 한경면 저지리 거주>

이런 의도에서 순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어느 구비문학보다 가창자의 창작 자율권이 강하고 그래서 더욱 가변적이고 세련될 수밖에 없는 서사무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본다. 이런 차이가 <강을생본>과 다른 이본들과의 서사구조 전개 차이점의 원인인 듯하다.

8. 주무 할망의 수양딸이 됨 <모든 이본에 존재>

주무할망은 비단을 짜는 노인 할멈으로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가는 존재이다.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가는 존재이므로 문도령과 자청비를 다시 만나게 해주나 자청비로 인해 둘의 만남은 실패하게 된다.

할멈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데, 주로 하는 일은 비단을 짠다.

<안사인본>, <이달춘본>, <고대중본> - 주무할멈

<강을생본> - 청태국마귀 할멈

<박봉춘본>, <한행수본>, <한상수본> - 비단 짜는 노인할멈

<강순선본> - 쉼마구 할마님

9. 주무할멈에게 쫓겨나 종이 됨 <모든 이본에 존재>

- ① 자청비는 생각다 못해 종이 되어 송낙을 쓰고 가사를 입고 동냥을 다녔다. <한상수본>
- ② 상주절에 올라가 대사님과 의논하여 머리 깎아 종이 된다. <이달춘본>
- ③ 자청비애기씨는 머리 삭발시켜 간다. <한행수본>
- ④ 오늘은 사월 초파일이라 머리 깎고 중 행차를 하고 시주 마련하러 다닌다. <안사인본>
- ⑤ 하늘에서 굴송낙과 굴장삼과 목에 엄벌도 내려와 입어 보니 종이 분명하다. <고대중본>

위와 같이 모든 이본에서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비가 하늘에 오르기 위해 선 현실에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청비를 중으로 만듦으로써 하늘에 오르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하늘에서 문도령과 재회 <모든 이본에 존재>

자청비는 종이 되어 궁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하늘에 올라 문도령을 만난다.

다른 본에서는 궁녀들과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대중본>에서만 다르다.

- ① 박줄을 타서 하늘에 올라 삼천 궁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문왕성 문도령의 집을 알게 된다. <고대중본>

궁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하늘에 오르는 내용에서 <고대중본>은 스스로 박줄을 십어 하늘에 오르고 궁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다음 문도령의 집을 알게 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이본에서 하늘에 사는 궁녀들의 어려움을 자청비가 해결해 주고 있다.

11. 시험을 통과하여 며느리로 인정받음 <안사인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한행수본>, <한상수본>, <이달춘본>

이 단락은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가 신이 되는 통과례로 문선왕이 내는 시험을 통과하여 며느리로 인정받는 부분이다. 시험의 내용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칼선다리를 놓아 건너는 것인데, <박봉춘본>은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이 없으며, <강순선본>은 중략되어 있다.

- ① 흰 자 구덩이를 파 놓고 숯 켜 불을 질러 칼선다리를 놓아 건너라 하니 자청비는 눈물을 흘리며 한 발, 두 발 타 나간다. <안사인본>
- ② 구덩이 속에 팔천 가마의 숯을 피우고 그 위에 칼을 해서 걸쳐 건너라 하니, 자청비는 하늘에 축수하여 빗방울 내리기를 축원한 후 건너간다. <한행수본>
- ③ 백탄 숯불을 섬같이 살라 놓고 그 위에 칼선다리를 놓아 건너라 하니 서수왕따님 애기는 못하겠다 하고, 자청비는 옥황상제님께 축수를 드리면서 비를 한줄기 내려 달라 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 칼선다리가 식자 자청비가 칼선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이달춘본>
- ④ 흰 자 구덩이를 파고 숯 켜 섬을 불 피워 놓고 칼선다리를 놓아 타고 들어간다. <고대중본>
- ⑤ 땅을 흰 자 파고 숯 켜 섬을 넣은 다음 불을 피워 놓고 작도를 걸어 놓으니 자청비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작도 위를 건넜다. <한상수본>
- ⑥ 백탄 숯불에 칼 선 다리를 놓아 건너라 하니 자청비가 하늘에 축수하여 비를 내려 달라 하니 대오방 수천리에 비가 와서 그 때야 칼선다리를 타고 옥황에 오른다. <강을생본>
- ⑦ 부모에게 문도령이 애걸을 하여 부부가 되니 <박봉춘본>

시험을 통과하여 며느리로 인정받는 대목인 이 단락은 자청비가 신이 되는 통과례로서 평범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는 자청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써 자청비야말로 능력이 뛰어난 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경본풀이」에서 무척 중요하다. 지상인이 천상인이 되는 과정, 하늘 옥황 문선왕의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문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대목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신화적 측면에서도 자청비가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 <박봉춘본>에서는 ‘부모에게 문도령이 애걸을 하여 부부가 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백탄 숯불 위에 칼선다리를 놓고 오르고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과 부부가 되었다는 내용은 들어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았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화 해석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 단락은 중략되지만 않았다면 <강순선본>에 반드시 존재했을 단락이다.

12. 자청비는 문도령을 말쑤딸아기한테 보내고 돌아오지 않자 그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오게 함 <안사인본>, <강을생본>, <이달춘본>, <고대중본>, <한상수본>, <한행수본>, <박봉춘본>

이 단락은 <강순선본>을 제외한 이본에 존재하는 단락이다. 자청비는 자신을 잊고 서천꽃밭 말쑤딸아기와 행복에 푹 빠졌던 문도령에게 서운함을 느껴 문선왕에게 하소연하러 간다. 이 때 문선왕이 오곡씨를 주면서 지상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늘의 변란을 막아내는 공적이 없는 이야기에선 이처럼 그냥 오곡씨를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강순선본>은 이 단락이 누락되어 있는데 앞 뒤 문맥으로 보아 중략되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강순선본>의 출전인 ‘제주도 무속 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의 중략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님 아버님신디 강 예숙이나 제껴 아정 오기가 어찌 호오리까.
 어서 걸랑 기영하라.
 무신 말을 곱앙 오느니.
 아머님 아버님신디 강,
 묵은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좋읍네까.
 묵은 사람이 좋읍네까, 새 사름이 좋읍네까.
 묵은 옷이 좋읍네까, 새 옷이 좋읍네까 문딱 곱당....

.....

문왕성 문도령은 급훈 지명에 불안장도 거꾸로 매왕 오라간다.
문왕성 문도령님이사 꽃감관네 집의 강
말젯밭애기영 백년혜로 혜영 삼서.

위의 인용문처럼 자청비가 시험을 통과하여 머느리로 인정받는 대목에서 누락되었다가 문도령이 서천꽃밭 말젯밭애기한테 가 있다가 허겁지겁 돌아오는 부분부터 다시 나온다. 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문도령이 정신없이 자청비한테 돌아 왔다는 것, 그리고 자청비가 한 말 중 ‘문왕성 문도령님이사 꽃감관네 집의 강 말젯밭애기영 백년혜로 혜영삼서’. 라고 한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앞 내용은 문도령을 말젯밭애기한테 보내는 내용인 듯하다. 따라서 12단락은 뒤의 내용으로 보아 중략되지 않았다면 그 존재성을 짐작할 수 있는 단락이다.

13. 문도령의 죽음과 서천꽃밭 꽃으로 문도령을 살려냄

<안사인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한상수본>

이 단락이 존재하는 이본은 8개의 이본 중 4개이다.

먼저 누락된 이본에는 <고대중본>, <강순선본>, <박봉춘본>, <한행수본>이다. 내용은 문도령이 죽고나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해서 그를 살리는 내용이다. 이 단락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누락되어 있을 경우와 둘째는 이 단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의 네 이본 중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은 구연자와 전승민들이 하늘을 신성 불가침의 장소로 생각하고, 하늘의 존재에 많은 가치 부여를 한 듯 하다. 따라서 하늘이라는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자청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도령을 그녀보다 못한 존재로 작품 속에 그려 놓기는 했어도 문도령이 천상의 존재임을 중하게 여겼고, 따라서 작품 속에 그의 죽음을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 죽음이 없으므로 살리는 내용도 없다. 신화인의 입장에선 천상적 존재의 죽음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봉춘본>에서도 이 단락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의 세 이본과는 달리 하늘에 가치 부여를 하여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박봉춘본>에서는 하늘에 변란이 나자 자청비가 이 변란을 해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늘에 가치를 두었다면 하늘의 변란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박봉춘본>은 하늘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여주인공 자청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가장 되지 않았을까 한다. 다만 이 본에서 13 단락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문도령의 죽음이 누락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단락이 존재하는 이본들은 앞의 <박봉춘본>처럼 자청비의 탁월한 능력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을 그려 놓고 또 죽은 그를 자청비가 능수능란하게 살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단락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네 이본들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이 단락이 작품 내에 삽입됨으로써 작품의 극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하겠다.

14. 하늘의 변란이 나자 이를 해결함

<안사인본>, <강을생본>, <박봉춘본>, <한상수본>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고 세경신의 신직의 표시인 오곡씨를 받는 본은 <안사인본>, <박봉춘본>, <한상수본>이다. 또 하늘의 변란을 해결했지만 오곡씨가 아닌 '제주 낙형 땅 한 쪽 물 한 쪽'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은 <강을생본>이다.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내용이 없는 본은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 <이달춘본>인데 이들 본에서 오곡씨는 문선왕에게 하소연 하러 가서 얻어 오거나, 아니면 자청비 스스로 오곡씨를 갖고 내려온다.

하늘의 변란이 없는 위의 이본들 중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도 역시 하늘은 변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변란이 일어나고 또, 그 변란을 해결하는 삽화가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이는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달춘본>에서는 이 단락이 보이지 않으나, 13 단락인 문도령의 죽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의 <박봉춘본>에서처럼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14단락의 존재로 작품의 구성력은 더 견고할 있다. 왜냐하면 자청비가 오곡씨를 갖게 되는 필연적인 사건을 설정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늘의 변란을 해결한 자청비가 그 공으로 오곡씨를 받게 함으로써 신직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작품

속에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작품 구성력이 탄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오곡씨를 받고 내려옴 <모든 이본에 존재>

이 단락은 오곡씨를 받고 내려오는 내용이다. 각 이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승전한 것을 치하하고 땅 반 물 반을 갈라주고 오곡씨를 주면서 인간에 내려가서 세경이나 말아 살라 하여 <박봉춘본>
- ②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청비에게 땅을 떼어 주니 자청비는 오곡씨를 달라고 했다. 천자는 자청비의 소원을 들어 오곡의 씨앗을 주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칠월 보름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한상수본>
- ③ 말젓말아기한테 가서 소식 없는 문도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그가 허겁지겁 돌아오자 서운한 맘에 하늘에 올라 문선왕한테 하소연하자 오곡씨를 갖고 씨나 골라 먹으면서 살라 하니 오곡씨를 갖고 내려 온다. <이달춘본>, <강을생본>
- ④ 문도령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청비가 보낸 편지 내용과 다르게 부모님이 편안하자 말젓말아기한테 다시 가 버린다. 하소연 하러간 자청비는 문선왕에게 오곡씨를 달라 하고 네 마음대로 담아 가라하니 자청비는 고루 고루 담고 내려온다.
<고대중본>
- 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오곡씨를 갖고 인간 제석 할멈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잘 살라는 편지를 쓰고 내려온다. <한행수본>
- ⑥ 천제왕이 승전을 치하하여 땅 흔 착 물 흔 착을 주나 아니 받고 오곡 열두시만국이나 내여 달라 해서 시만국을 내어주니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 나흘날 인간에 내려 산다. <안사인본>
- ⑦ 문왕성 문도령은 말젓말아기랑 잘 살라고 해 놓고 오곡종자를 하사 받아 내려가겠다고 한다. <강순선본>

오곡씨를 승전한 치하로 받는 본도 있지만 자청비가 자의로 달라고 하고 있고, 공적의 내용이 없을 때에는 문선왕이 썼거나, 혹은 자청비가 누구한테 받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16. 신직 발휘, 세경신으로 좌정 <모든 이본에 존재>

자청비는 세경신으로 좌정하고 인정이 많은 밭에는 풍년을 주고 인정이 없는 밭에는 흉년을 주는 직접 풍흉을 관장하는 신직을 발휘한다.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이로 좌정한다. 본에 따라서는 문도령이 나타나지 않고 자청비와 정수남이만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사라는 것은 하늘, 땅, 목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신직을 부여받음이 타당한 듯 하다.

특히 <강을생본>은 문도령이 상세경, 자청비가 중세경, 정수남이가 하세경으로 좌정하는 이유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2. 이본 비교 결과

이상과 같이 총 8편의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어떤 단락은 어떤 본에는 존재하고, 또 어떤 본에는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단락은 모든 이본에 존재함을 보았다.

위의 결과를 알기 쉽게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단 <강순선본>은 중략된 부분을 재구해서 비교함)

<표1> 이본 비교표

단락 \ 이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안사인	○	○	○	○	○	○	○	○	○	○	○	○	○	○	○	○
강을생	○	○	○	○	○	○	○	○	○	○	○	○	○	○	○	○
고대중	○	○	○	○	○	○	○	○	○	○	○	○	×	×	○	○
이달춘	○	○	○	○	○	○	○	○	○	○	○	○	○	×	○	○
강순선	○	○	○	○	○	○	○	○	○	○	○	○	×	×	○	○
한행수	○	○	○	○	○	○	○	○	○	○	○	○	×	×	○	○
박봉춘	○	○	○	○	○	○	○	○	○	○	○	○	×	○	○	○
한상수	○	○	○	○	○	○	○	○	○	○	○	○	○	○	○	○

<표1> 이본비교표를 통해 보면 「세경본풀이」는 비교적 이본들 사이에 차이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상화된 총 16개 단락 중에서 변화가 보이는 단락은 13단락인 문도령의 죽음과 그를 살리는 단락과 14단락인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내용의 단락이다. 2개의 단락에서만 변화가 보인다는 것은 「세경본풀이」가 전승에 있어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표를 토대로 모든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락들을 추출한 기본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기본형 추출

단락	내 용
1	기자 정성을 드렸으나 시주가 모자라 딸로 접지
2	자칭비라 이름을 지음
3	문도령과의 만남과 남장으로 3년 동거, 그리고 이별
4	문도령을 기다리다 정수남이의 땀에 빠져 정수남이를 죽이게 됨
5	사람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남
6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구함
7	환생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집에서 쫓겨남
8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됨
9	주무할망에게 쫓겨나 중이 됨
10	하늘에서 문도령과 재회
11	시험을 통과하여 며느리로 인정 받음
12	자칭비는 문도령을 말쑤딸이기한테 보내고 그가 돌아오지 않자 편지를 써서 그를 돌아오게 함
15	오곡씨를 받고 내려옴
16	신직 발휘, 세경신으로 좌정함

위 기본형에서 보이는 14개 단락은 8편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기본 단락들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락들은 13(문도령의 죽음과 서천꽃밭 꽃을 이용해 문도령을 살림), 14단락(하늘의 변란이 나자 이를 해결)인데, 13단락은 문도령이 죽자, 서천꽃밭 꽃을 이용해 문도령을 살리는 단락이고, 14단락은 하늘의 변란이 나자 해결하는 단락이다.

이 기본형은 16개 단락 중 13단락과 14단락이 누락되어 있어 사건 진행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의 순서로 되며, 12단락에서 15단락으로 곧바로 사건진

행이 된다.

논의 전개를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자청비가 문도령을 말갯말아기한테 보내고 소식이 없자 편지를 쓴다.
- ㉡ 이 편지를 받고서야 문도령이 자신이 자청비를 잊은 것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자청비에게 온다.
- ㉢ 급하게 온 문도령의 모습을 본 자청비는 오해를 하고 하늘에 오른다.
- ㉣ 문선왕한테 하소연을 하자 문선왕이 오곡씨를 주면서 지상에 내려가 살라고 한다. 또는 문선왕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직접 스스로 오곡씨를 갖고 내려온다.

위의 내용 중 ㉠, ㉡, ㉢은 12단락을 다시 세분한 것이고, ㉣은 15단락의 내용이다. 즉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기본형의 사건 진행은 자청비가 문도령을 서천 꽃밭 말갯말아기한테 보냈는데, 그에게서 소식이 없자 문도령이 말갯말아기한테 빠져 그녀를 잊은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어, 하늘에 올라 문선왕에게 하소연하러 간다. 하소연을 들은 문선왕이 오곡씨를 줘서 그녀가 오곡씨를 받아 내려 오거나, 또는 그녀가 문선왕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하늘에 올라 오곡씨를 갖고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공적이 없이 문선왕이 주기도 하고, 자청비가 스스로 갖고 내려오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자청비가 신이 되는 과정인 통과 의례를 거쳤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논의를 자세히 하기 위해서 기본형에 속하지 않는 13단락과 14단락에 중점을 두어서 이본들을 3개의 아형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하여 보면 3개의 아형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아형별로 살펴보자.

<표3> 아형 비교표

아형 1	아형 2	아형 3
기본형	기본형+ 13, 14	· 기본형+13
		· 기본형+14

① 아형 1

내용단락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

이에 해당하는 해당본은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으로, <표2> 기본형 추출표와 같이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문도령이 죽자 문도령을 살리는 내용이 없고(13단락), 하늘의 변란이 나자 이를 해결하는 내용(14단락)이 없다. 문도령의 죽음은 신화인들이기에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또 하늘의 변란이 나자 이를 해결하는 내용이 없음도 하늘은 완전 무결한 곳으로 생각하여 하늘에서의 변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 속에 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는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누락된 것 같지 않고 천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도령의 죽음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늘의 변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이 없이도 오탁씨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존재가 된 자청비이기에 따로 공적의 삽화를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② 아형 2

내용 단락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에 해당하는 해당본은 <안사인본>과 <강을생본>, <한상수본>이다.

이 본들은 추상화한 16개 단락이 모두 존재한다. 문도령이 죽자 자청비가 문도령을 살리는 내용과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작품의 재미와 함께 구성력이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도령의 죽음을 작품 속에 삽입한 것은 자청비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단지 <안사인본>과 <강을생본>의 차이점은 하늘의 변란을 막는데, <안사인본>에서는 멸망꽃으로, 또 <강을생본>에서는 칼을 써서 해결한다는 점이다. <한상수본>은 <안사인본>를 현대어로 개작하여 만들어진 개작본이므로 <안사인본>에서처럼 멸망꽃을 이용하여 난을 진압한다.

이 본들은 기본형에다 13, 14단락이 더 삽입되어 있다. [아형 1]과 달리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자청비가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을 살려낸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변란이 나서 천자도 당황하여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변란을 자청비가 자청하며 해결하기도 한다. 하늘에 가치를 두고 있기보다는 자청비의 활약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강을생본>은 다양한 제주 지역 언어와 속담 사용으로 제주 지역성과 지역민들의 생활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진국 부인이 잉태 후 먹고 싶은 음식이 생동하는 감각어와 어울려 작품의 실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창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고령이라는 점은 다양한 제주 지역어 사용과 많은 속담사용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잉태와 출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 가창자기에 실제 입덧할 때 먹고 싶은 음식과 감각어의 사용에 실제성과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안사인본>에서 보이는 묘사와 비유는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특히 자청비가 문도령을 데리고 부모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내용의 묘사나, 하늘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쓰러져 있는 내용의 묘사는 가창자의 개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교성도 아울러 살피게 해 준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에 있어서도 「세경본풀이」의 모든 이본에 두루 나타나는 상투적인 표현인 “비새ㄴ찌 울단보난, 비옥ㄴ뜯 양지에, 주충ㄴ뜯 눈물”과 달리 가창자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벌떼ㄴ뜯 군졸, 새끼 난 개 허리 모양, 꽃죽ㄴ끈 용심” 같은 표현들은 다른 이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안사인본>의 작품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가창자의 문학적 역량이라 볼 수 있다.

③ 아형 3

내용단락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먼저 13단락이 누락되어 있는 본으로 해당본은 <박봉춘본>이다. 이 본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이 죽자 이를 다시 살리는 내용은 없지만,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내용은 보인다.

그리고 14단락이 누락되어 있는 본은 <이달춘본>인데 문도령의 죽음과 살리는 내용

이 있는 대신에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부분은 없다. 이 [아형 3]은 [아형 2]에서 존재하고 있는 단락들중 한 단락씩 누락되어 있다.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은 인정하면서도, 하늘에 변란이 나는 것을 인정하는 못한 점이나, 또 문도령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데도 하늘의 변란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즉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죽음을 작품 속에 그려 놓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청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늘에 가치를 부여를 하지 않고 자청비의 활약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다가 하늘의 가치를 인정해서 하늘에 변란이 나고, 이를 자청비가 해결하는 부분을 누락시키기도 한다. 이 두 단락이 존재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보단 자청비의 능력을 중점으로 그리는 것이고, 이 두 단락이 누락되는 것은 자청비의 활약보단 하늘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단락 중 한 단락은 존재하고 한 단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의 논리로 보면 모순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아형 3]은 두 단락이 모두 존재했었는데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누락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누락이 가능한 것은 두 단락이 신화적으로 중요한 단락이 아니라 흥미와 재미를 한층 가미시키기 위한 의도로 삽입된 단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4단락이 신화를 얻기 위한 공적에 해당하므로 이 단락의 누락은 신화상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려 한다.

누락된 이본들은 <이달춘본>, <고대중본>, <강순선본>, <한행수본>이고 위 내용 단락이 들어 있는 이본은 <안사인본>, <강을생본>, <박봉춘본>, <한상수본>이다.

존재하고 있는 이본들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4단락이 존재하는 이본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4> 14 단락 내용 비교표

이 본	14 단락의 내용
안사인	<p>즈청비가 이 말을 듣고 알엿 녀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꺼아진 천제국 나라에 들어간 보니, 아닐세 세벤난이 일어나고 일만명의 제군스가 삼만명의 제군스가 칼을 받고 활을 받아 싸움싸움 허염시난 멜망꽃을 동서레레 허켰더니 일만명의 제군스 삼만명의 제군스가 건삼밭디 녹용삼 녹용삼 밧디 건삼 쓰러지듯 동서레레 쓰러져 세벤난을 막아노니, 천제왕 백제왕의서 땅 혼 착 물 혼 착 내여준다.</p> <p>즈청비가 천제왕 백제왕아피 등장들 때 『오곡 열두시만국(五穀十二新萬穀)이나 내여줍서.』</p>
강을생	<p>두 일피 열나홀 정성드런 비소곰을 지여 놓안, 오소리 감티에 오선갑을 지여 놓고, 나갈 적엔 오선갑을 둘러 입고 오소리 감티를 둘러 싸고 철리물을 둘러 타고 툄나라광 마주 당하난 저 국 사름은 고초 들러 칼을 받고 고초 들러 활을 받고, 즈청비는 하늘 윗테레 동동 올라가명 비소곰을 혼번을 들러 외우 들러 치난 삼천명이 히여지고, 느다 둘러 혼번을 헤여치난 오천명이 히여지여, 즈청비 툄나라 도독을 먼 심고 들어오난...</p> <p>난 그도 저도 아니 흐쿠다. 지주 낙형 물 혼착, 땅 혼착을 비여줍서.</p>
박봉춘	<p>인간 대국을 내려 오라서 싸움을 평정하고 대국 천자를 승전하게 하니...</p> <p>.....</p> <p>낭군을 이별하고 하늘 옥황에게 배우니 승전한 치하를 하고 땅 반 물 반을 갈라주고 오곡씨를 주면서 인간에 내려가서 세경이나 맞하 살라하니</p>
한상수	<p>이 때 마침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일어 났다. 난리를 평정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반 주겠다고 했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얻어 온 멜망꽃을 가지고 천자 앞에 나가서 싸움을 평정시켰다고 했다, 천자는 한시가 급한 때라 더 생각할 것 없이 그래라고 했다. 자청비는 싸움터에 나가 되는 대로 멜망꽃을 뿌렸다. 싸움은 단번에 끝났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자청비에게 땅을 떼어 주었다. 자청비는 그것을 사양했다. 그리고 줄 것이 있으면 오곡의 씨앗이나 달라고 했다.</p>

<안사인본>은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멜망꽃을 가지고 하늘에 변란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공으로 땅 한쪽과 물 한쪽을 주나 마다하고 열두시만국을 달라고 한다. <강을생본>은 하늘의 변란을 칼을 써서 해결하고 있으며 그 공으로 제주 낙형 땅 한 쪽과 물 한 쪽을 달라고 해서 받는다. 또 <박봉춘본>은 승전을 치하해서 땅 반, 물 반을 갈라주고 오곡씨를 준다. 그리고 <한상수본>은 <안사인본>과 유사하다. 즉 위 이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안사인본>이나 <강을생본>은 싸움 장면을 자세히 그리고 있고, <강을생본>은 한편의 군담소설을 연상하게 한다.

또 위 이본들의 차이점은 승리한 공으로 <안사인본>, <박봉춘본>, <한상수본>은 오곡씨를 얻지만, <강을생본>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공으로 '지주낙형 물 혼착, 땅 혼착'을 달라하고 받는다. 문선왕에게 오곡씨를 받는 것은 하늘이 변란을 해결한 후의 일이다.

자청비가 서천꽃밭 말짚떨아기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하소연하러 하늘에 올라가 문선왕을 만난 후

문선왕은 오곡씨를 탄 주명
“이거 ㄴ정 내려가라.”
자청비 씨아방안티 오곡씨를 탄 내려오단…

자청비는 오곡씨를 받는다.

즉 <강을생본>에서는 싸움에서 이긴 공적과 오곡씨를 받는 것이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있다.²²⁾

자청비는 문선왕이 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이미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더 이상은 지상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신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드디어 자청비는 문도령이나 문선왕처럼 하늘의 존재인 신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신인 자청비에게 신직을 얻기 위한 어떤 공적이 꼭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미 신이기 때문에 공적이 없어도 자청비는 신직을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자청비가 스스로 갖고 왔건, 공적이 없어도 문선왕이 줬건, 혹은 어떤 공적이 있었든지 간에 오곡씨를 갖고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적이 없이 오곡씨를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 신직 그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문도령과의 사회적 공인을 받은 통과례인 결혼과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신이 된 자청비를 간과해 버린 결과인 것 같다. 꼭 공적이 있어야만 신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을생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강을생본>에선 공적과 신직이 다 나와 있어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있

22) 박경신의 연구에서는 한·본에서 자청비가 신직을 받을만한 공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곡의 씨를 가지고 내려 오는 것이 순전히 자청비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어서 神職 그 자체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신화로서는 중대한 결함일 수 있다 하였다. 그러면서 강·본, 안·본, 신화본, 박·본에서 오곡의 씨를 받은 직접적 동기는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강·본은 <강을생본>을, 안·본은 <안사인본>을, 신화본은 <한상수가 안사인본을 개작한 것>, 박·본은 <박봉춘본>을 말한다.

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이 있음으로 오곡씨를 받을 수 있게 구성된 이본은 작품이 탄탄한 구성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혼으로 신이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이 된 자청비에게 신직은 당연하다. 단지 어떤 신직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神인 자청비가 오곡씨를 택함으로써 세경신의 신직을 받게 된다. 공적이 없이 자청비는 세경신이 되었다. 이는 <강을생본>, <고대중본>, <한행수본>, <강순선본>에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적이 있어야 신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결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반드시 공적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신직을 받을 수 있다면, 14 단락은 「세경본풀이」의 기본형인 <기본형 추출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²³⁾ 왜냐하면 「세경본풀이」가 신화이기 때문에 신직을 얻는 내용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신직을 얻을 수 있는 공적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은 신화 자체의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이 단락은 모든 이본에도 공통적으로 들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고대중본>, <이달춘본>, <강순선본>, <한행수본>에서도 이 단락은 누락되어 있고, <강을생본>에서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은 이 단락을 신화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학적 흥미와 재미를 주기 위해 삽입된 삽화나 일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4 단락의 존재는 오곡씨를 받는 단락인 15단락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작품의 구성력이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사건의 전개도 더욱 필연성을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아형 2]가 다른 이본들보다 더 문학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다고 본다.

서사무가는 고대 문학의 잔존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모를 겪었다.²⁴⁾

「세경본풀이」 역시도 서사무가이므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모를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승민과 가창자는 이 작품을 당시대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변형을 시도했을 것이고, 그 변형은 당시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짜여졌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의 요소는 망각과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창자들이 구비서사시를 배워 암송하는 과정에서

23) 박경신은 '이본에 따라서 탈락된 부분이 있거나 순서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구연현장에서 누락이나 기억상의 혼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단락들과 그 서사구조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고 함.

24) 조동일(1983), 「한국 문학 통사 제 2권」, 지식산업사, p.510.

가창자의 능력에 따라 망각과 창조는 쉽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연구자가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아형 1], [아형 2], [아형 3]으로 구분한 것도 이런 점에 있어서이다. 망각과 창조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전승민들의 사상, 생활, 역사적 사건, 자연환경 등과 같이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표현법이나 소재 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더불어 구비서사시인 본풀이는 가창자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향유층과 함께 만들어진 공동작이므로 향유층의 생활방식, 즉 혼인방식이나 가족관계, 농사법, 장례풍습 등등이 작품 속에 녹아 있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작품 속의 농사법을 통하여 농경이 어느 시대임을 추정할 수 있고, 작품 속의 혼인 방식을 통하여 어떠한 혼인 문화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경본풀이」의 작품 내 가족 관계와 혼인 관계를 통해 보면 향유층은 제주 전승민들의 가족 관계와 혼인 관계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도령과 자청비는 부모가 정해준 혼인 방식을 떠난 자유 연애의 혼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서천꽃밭 말쑤딸아기와 동성혼을 하고 떠난 후 문도령을 그녀의 남편으로 믿게 하여 그녀와 문도령과의 부부 생활을 인정하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의 일차적 혼인 관계 외에 문도령과 서천꽃밭 말쑤딸아기와 또 다른 혼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이다. 이는 문도령과 먼저 결혼한 자청비는 처의 관계로, 이후 문도령과 다시 혼인 관계로 묶인 서천꽃밭 말쑤딸아기는 첩의 관계가 되어 처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플롯이라는 큰 구조를 이루는 요소의 하나로 서사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삽화 혹은 일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요 플롯이나 중심적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짧은 이야기, 혹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심적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다소 주변적이거나 엉뚱한 것이기 때문에 서사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한 작품의 미학적 구조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도입, 플롯이 가지는 긴장감의 완급 조절, 분위기 전환들의 면에서 중요한 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⁵⁾

이 작품의 전승민과 가창자는 이 작품 속에 중심적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미학적 구조를 풍부히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삽입시켰다. 그 당시 사회가 첩을 인정하는 사회였기에 작품 내에 처첩간의 갈등의 요소는 전승민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25) 이인재외(1996), 「현대소설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p.84.

있었다. 또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대목에선 그 당시 유행했던 군담소설의 유형을 수용하여 역시 전승민에게 재미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게 되는 데에는 이 작품이 무속신화이기에 가능했고, 또 가창자나 전승민의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이 작용으로 위 요소를 삽입시켜 문학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14단락은 작품의 문학적성을 더욱 더 확고히 해 주는 서사단락인 것이다.

문제는 12단락인데 이 단락은 첩으로 인한 갈등이다. 자청비가 신이 되고 나서 오곡 씨를 얻기까지 12, 13, 14단락이 존재하는데, 13, 14단락은 이본에 따라 있고 없음이 나타나는데, 12단락은 모든 이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위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그 당시 사회배경이 첩을 인정하는 사회였기에 이 부분은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 왔을 것으로 본다. 또 이 부분은 문도령이 하늘의 존재로서 그를 폄하하는 내용이 없기에 하늘의 가치를 높게 보는 [아형 1]의 이본들도 이를 수용하기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12단락은 13, 14단락과는 달리 모든 이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12단락은 이 작품에서 당시 사회의 혼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창자들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보기보다는 구비서사시가 구연되던 시기의 혼인 풍습 내지는 가족 관계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살펴 보았다. 이 무속신화는 이본들간의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본들간의 차이가 나는 13단락인 문도령의 죽음과 그를 살리는 단락과 하늘의 변란을 해결하는 14단락 등은 신화적 측면이 아니라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삽입단락으로 봄이 타당하다.

Ⅲ. 구조와 의미

1. 구 조

「세경본풀이」의 구조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상황에서 인물의 완결된 행위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문장이 되지 못하는 특정한 단어나 수식 구절은 단락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길더라도 서사 진행에 긴요하지 않는 묘사부분은 서사단락이 될 수 없다.²⁶⁾

연구자는 기본 텍스트를 <안사인본>으로 삼고 인과관계나 서사 구조상 필요한 부분들이 빠진 경우 다른 이본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예를 들어 정수남이의 출생담은 <안사인본>에는 빠져 있다. 큰곳에 나오는 많은 신화들을 보면 지상적인 존재가 신으로 될 때, 중요한 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생담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면 목축신의 출생담도 있는 것이 본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수남이를 죽였을 때 부엉이로 환생하는 부분은 내용 전개상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청비는 오십자 선 구덩이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칼선다리를 세우고 그 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녀는 이 때 하늘에 축수하여 비를 오게 하여, 숯불을 끄고, 칼을 식힌 후, 칼날 위를 지나 간다. 칼 선 다리 위에서 농사 짓는 여러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자청비가 ‘세경으로나 살겠다’하고 나중에 그녀를 세경신으로 만든다. 이 내용은 그녀가 나중에 농경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칼선다리 위에 올라서는 목적은, 그러므로 며느리가 될 자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도 있지만, 실상은 그가 신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혹은 받는다면 어떤 신직을 받을 것인지를 위해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진]²⁷⁾에는 비를 불러 숯불을 끄는 것이 없고, 또 칼선다리 위에서 신직을 예시 받는 내용도 없다. 그냥 선 자 구덩이 속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칼선다리 위를 걷는 것이다. 칼선다리 위에 올라서는 것은 오늘날 무속사회에서도 존재한다. 이것은 그 옛날 자청비가 행

26) 서대석(1979), 전계서, p.9.

27) [사진]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진(현용준)’을 말함.

했던 이러한 의식에서 기원한다고 보여지는 만큼, 본고는 [남국]²⁸⁾에 나오는 이들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⁹⁾

1) 텍스트의 분절

앞 내용 중의 「사전」은 <안사인본>을 말함이며, 「남국」은 <강을생본>을 말함이다. 비를 불러 솟불을 끄는 내용이 서사구조상 중요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구자가 주 자료로 하고자 하는 <안사인>본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런 누락된 부분들이 신화적 입장에서나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이본들에서 취해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34개의 의미망으로 분절하였다.

여기에서 쓰이는 용어는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데, 가출의 의미는 축출까지를 포함한다. 가출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나서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가 자신의 복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동요’의 배경설화에서 서동이 마를 나눠주며 부른 ‘서동요’ 때문에 쫓겨나게 된 선화공주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축출당한 것이지만 축출 당할 때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금은 보화를 갖고 궁을 나서고 있기에 일방적인 축출이 아니라 소극적인 가출로 보려는 것이다. 즉, 소극적 가출이든 적극적 가출이든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결합을 위하여 집을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가출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킨다.

①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출생

- (1) 김진국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원불수룩을 드렸으나, 백근이 다 안 차거나 서개남 금법 당에 원불수룩을 드렸기 때문에 딸로 점지되어 출생한다. (출생)
- (2) 정수덕이한테는 아들을 점지하여 정수남이가 출생한다. (하세경의 출생)
- (3) 이름을 자청하여 낳다 하여 자청비라 짓는다. (命名)

② 1차 가출과 귀가

28) [남국]은 ‘남국의 무속 서사시(진성기)’를 말함.

29)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 신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42.

- (4) 열 다섯 십오세가 되자 정술택이의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묻는다. (여성성 인지)
- (5) 주천강 연못에 빨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과 1차 만남)
- (6)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문도령과 동행한다. (1차 가출, 남성성獲得)
- (7) 여자임을 속여 같이 동거한다. (1차 동거-남성성으로)
- (8) 자청비의 여성성을 확인하거나, 자청비보다 못한 열등의식에서 오줌갈기기, 활쏘기, 씨름, 달리기를 하나 자청비가 이긴다. (남성성 獲得)
- (9) 문도령에게 서수왕따님애기한테 장가가라는 편지가 온다. (1차 이별의 원인)
- (10) 같이 공부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목욕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여성성 표출)
- (11) 문도령을 여자로 꾸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속이고 한 방에서 석 달 열흘 동안을 함께 지낸다. (1차 귀가-2차 동거:여성성으로)
- (12) 본매를 주고 받고 문도령은 하늘로, 자청비는 지상에 남는다. (1차 이별)

③ 2차 가출과 귀가

- (13)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소와 말을 주면서 일을 시키나 모두 잡아먹고 돌아온 정수남이는 문도령이 노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을 고한다. (1차 고난 원인)
- (14)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러 정수남이와 함께 집을 떠나 산에 올랐는데 겁간하려는 정수남이를 죽인다. (죽은 정수남이는 부영이로 환생) (2차 가출- 1차 고난해결)
- (15) 집으로 돌아오나 종을 죽였다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힐책한다. (2차 귀가)

④ 3차 가출과 귀가

- (16)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서천꽃밭으로 가서 해를 주는 부영이를 잡아 주고 (정수남이의 환생) 그 집 사위가 되어 꽃을 몰래 훔친다.
(3차 가출, 準神的 능력 획득-남성성으로)
- (17) 서천꽃밭 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린다. (準神的 능력 발휘)
- (18)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돌아온다. (3차 귀가)
- (19) 사람 죽이고 살린다고 다시 내쫓긴다. (4차 가출)

⑤ 4차 가출과 귀가

(20) 비단을 짜는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되어서 보호를 받는다.

(만남의 계기마련- 女性性으로)

(21) 문도령을 만날 수 있었으나,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다. (2차 이별)

(22) 주무할망에게서도 쫓겨난다. (만남의 機會 剝奪)

(23) 머리 깎고 중이 된다. (女性性 除去)

(24) 문도령의 명으로 지상에 내려온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에 올라 문도령을 만난다.

(3차 동거-女性性 除去)

(25) 문선왕은 본 없이 쾌자, 도폭, 보선짓고, 백탄 숯불에 칼선다리 타서 내려오는 과제를 자청비에게 낸다. (2차 고난)

(26) 하늘에 축수하여 비를 내리게 하여 시험을 통과, 문도령과 결혼한다.

(2차 고난 해결, 神聖性 획득)

(27) 말갯말아기한테 문도령을 보내나 문도령은 기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3차 고난)

(28) 편지를 써서 문도령을 돌아오게 한다. (3차 고난 해결)

(29) 하늘 나라 사람들이 자청비를 푸대접하려고 문도령을 죽인다. (4차 고난)

(30) 기지로써 해결하고 서천꽃밭에 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린다. (4차 고난 해결)

(31) 하늘 나라에 변이 일어나서 멸망 꽃을 가져다가 변을 진압한다. (공적 1-神聖性)

(32) 세경신 직을 받고, 오곡 열두시만국을 내어 달라고 하고 오곡씨를 가지고 내려 와서 정수남이를 만난다. (4차 귀가, 農神職 獲得)

⑥ 농신으로 좌정과 신직 발휘

(33)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신직 발휘 1-農神性)

(34)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이로 좌정한다. (農神坐定)

2) 내용 단락의 요약

텍스트로 정한 「세경본풀이」를 34개 의미망의 형태로 분절하여 요약한 것을 6개의

큰 내용단락으로 나누고, 각 내용단락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내용단락은 (1)-(3)으로 자청비의 출생이 나타난다. 아울러 하세경인 정수남이의 출생이 나온다. 텍스트의 주인공인 자청비와 정수남이가 등장한다. 하지만 주인공인 자청비는 결합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시주가 백근이 안 차고, 서개남은중절대사를 만남) 이 내용 단락은 농경신이 되는 자청비의 출생담과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의 출생담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내용단락은 단락 (4)-(12)이다.

단락 (4)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인지한 자청비는

주친강 연못에 빨래를 간다.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나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 집을 떠나게 된다. 단락 (6)-(8)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동거를 하는 내용이다. 남자로 위장한 자청비와 문도령의 동거이다. 단락 (10)은 자청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여성성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자청비가 자신의 여성성을 문도령에게 표출한다.

단락 (11)단락은 자청비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자신의 돌아옴을 알리는데 김진국대감과 조진국부인은 자청비의 귀가를 기뻐하고 대견해 한다.

단락 (12)는 본매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별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내용단락은 (13)-(15)이다. 자청비가 정수남이의 숙임에 넘어가 정수남이와 동행 후 육보이려던 정수남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네 번째 내용단락은 (16)-(18)단락이다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가서 서천꽃감관의 말쑤딸아기와 결혼을 하고 꽃을 몰래 훔쳐 정수남이를 살린다. 살린 정수남이를 집에 데리고 오지만 부모님은 반기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면서 자청비를 집에서 다시 내쫓는다. 세 번째 내용단락에 이어 자청비는 또 부모로부터 내침을 당한 것이다.

다섯 번째 내용단락은 (19)-(32)단락이다. 이 다섯 번째 내용단락은 많은 삽화가 삽입되어 있는 단락이므로 이를 다시 다섯 개의 소 내용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다.

5-1 :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을 만날 수 있었으나 사소한 오해로 문도령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무할망한테도 쫓겨난다.

- 5-2 : 스스로 머리 깎고 중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궁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같이 하늘에 올라 문도령을 만나고 문선왕이 내는 시험을 통과한 후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 5-3 : 서천꽃밭 말쑤아기에게 문도령을 보내나 기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문도령에게 편지를 써서 문도령을 돌아오게 한다.
- 5-4 : 하늘 나라 사람들이 자청비를 푸대삼하려고 문도령을 죽이나, 기지와 재치로 그들을 물리치고 서천꽃밭의 꽃을 가지고 와서 문도령을 살린다.
- 5-5 : 하늘나라에 변이 일어나 멸망꽃을 가져다가 변을 진압한다.
- 5-6 : 세경신의 신직을 받고 오곡열두시만국과 오곡씨를 가지고 내려와 정수남이를 만난다.

여섯 번째 내용단락은 (33)-(34)단락이다.

(33)-(34)단락은 농신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이 많은 밭에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인정이 없는 밭에는 흉작을 주는 농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다.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이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34개의 의미망을 여섯 개의 큰 내용단락으로 묶어 보았다. 각 내용단락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내용단락은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출생

두 번째 내용단락은 여성성을 인지한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난 후 함께 동행하는 내용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의 귀가하는 내용

세 번째 내용단락은 정수남이의 꾀에 빠진 자청비가 농락할려던 정수남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

네 번째 내용단락은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몰래 훔쳐 정수남이를 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

다섯 번째 내용단락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면서 집에서 내쫓겨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되고, 시험을 통과, 며느리로 인정 받아 여러 공업을 세운 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용

여섯 번째 내용단락은 농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간략히 하여 구조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세경본풀이의 구조

내용단락 ①	자청비와 정수 남이의 출생	내용단락 ②	1차 가출과 귀가	내용단락 ⑥	농신으로 좌정과 능력 발휘
		내용단락 ③	2차 가출과 귀가		
		내용단락 ④	3차 가출과 귀가		
		내용단락 ⑤	4차 가출과 귀가 5-1 5-2 5-3 5-4 5-5 5-6		

<고정성>

<유동성>

<고정성>

고대 서사문학인 신화의 특징은 주인공 탄생의 신성성에서 출발한다.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기이한 탄생으로 나타난 인물이 고소설에서 영웅의 일생으로 그 삶이 드러나듯이 ①의 출생단락은 고정성을 띤다. 그리고 ⑥의 신으로의 좌정 역시 신의 유래담이라는 서사의 특징으로 보아 이것 역시 고정성 요소이다. 즉 내용단락 ②, ③, ④, ⑤만이 유동성을 띤다. 이들은 자유로운 변제가 가능하며 전승자의 문학적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경본풀이」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의 문학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따라서 내용단락 ②, ③, ④, ⑤는 가장 보편적인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가창자의 역량에 따라 점점 흥미 있게 진행된다.

3) 「세경본풀이」의 이중성³⁰⁾

구비서사시인 「세경본풀이」는 전승민들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신화가 갖는 기능이기도 하며, 문학 작품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주몽신화를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고구려인들의 협동과 단결을 위한 경전으로 삼았

30) 필자는 ‘이중성’을 복합되어 있다는 뜻으로 썼으며 ‘구조의 이중성’은 구조가 2개임을 이룸.

듯이 신화는 신앙민들에게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구려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고주몽을 ‘神’이나 ‘人間’으로 엄밀하게 구분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인간이면서 신격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천제의 아들과 하백의 외손이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볼 때 주몽은 천상적 존재의 속성을 띠고 있어 인간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활동하는 공간은 천상계가 아니라 지상계이다. 곧 신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활동한 셈이다. 고구려의 전승민들이 이러한 고주몽을 인간이면서 신격의 존재로 인식하면서 신성시하고 있는 점은 바로 한국 신화의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 신화인 「세경본풀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자청비와 문도령, 정수남이는 설화상에 천상적 공간과 지상적 공간을 넘나들고 있지만 인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천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한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 점은 전승민들이 「세경본풀이」 속 주인공들을 인간으로 여기기도 하고,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을 인간으로 여길 때는 그들의 작품 속 갈등은 전승민 자신의 갈등의 반영이요, 그들의 작품 속에서 공간의 이동은 전승민들이 지상에서 인식하는 공간의 이동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신화 속 주인공들은 지배층이 바라볼 때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동일시할 것이고 피지배층들이 바라볼 때에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과 동일시할 것이다.

신화 속 주인공을 신으로 여길 때는 전승민들과 신화 속 주인공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그 속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군신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구려 건국신화, 부여의 건국신화, 신라의 건국신화 등을 신들의 일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승민들이 상상 속에서 그러한 존재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전승민들이 신화 속에서 신을 만들었지만 그 신들은 전승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전승민들의 삶을 반영하고 전승민들의 사랑과 미움 같은 갈등을 신들의 삶 속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신화 속 주인공들이 신이라 하지만 ‘신성’만을 지닐 뿐 그들은 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신화 속 주인공은 한편으로는 전승민들의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승민들의 욕망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이것은 현실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만 이상은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없기에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문학의 특성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지식을 갖고 「세경본풀이」가 갖는 이중성을 논의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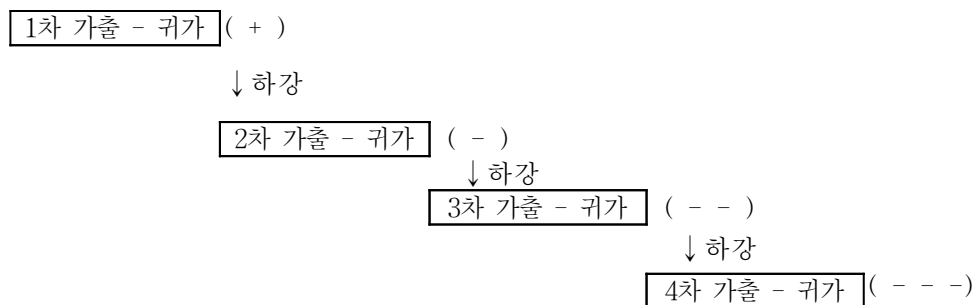
「세경본풀이」의 구조도에서 유동성을 띠는 것은 창조와 망각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승민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들에게 동일한 사고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불교가 국교냐, 유교가 국교냐에 따라 유동적 요소의 내용 단락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세경본풀이」 역시 구비 전승물이기에 그러한 변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시어의 외연과 내포처럼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2가지 의미를 드러내는데, 표면적 이야기는 한 여성인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뤄 가는 과정이고, 이면적 이야기는 결합의 존재로 태어난 한 인간인 자청비가 신이 되는 과정이다. 두 가지 의미가 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다.

신화는 구연되면서 전승되는 특징을 갖고, 무당인 창자와 단골(신앙민)인 청자들이 서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6개의 내용단락 중 신의 출생과 좌정은 고정적 요소이므로 변형될 수 없다. 이 요소가 변형되면 전설적 속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유로운 변제가 가능한 ②, ③, ④, ⑤ 단락을 중심으로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면적 구조를 살펴보자.

(1) 표면적 구조 [그림 1]

인간적 모습인 자청비의 하강구조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표면적 구조는 점차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면적 이야기는 한 여성으로서 자청비의 삶을 그리고 있다.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난 자청비는 십오세가 되자 정술택이한테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묻고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가서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그를 사랑하기에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그와 함께 동거를 한다. 서수왕 따님애기한테 장가가라는 편지를 받고 문도령이 떠나려 하자, 자청비도 그와 함께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밤을 같이 보낸다. <1차 가출-귀가>는 가출의 동기부터 긍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귀가해서도 자청비는 그녀의 부모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역시 긍정적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문도령과도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1차 가출-귀가>는 자청비에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이기에 (+)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문도령과 헤어지면서 자청비의 고난과 고통은 심화되어 간다. 그를 기다리다 문도령을 볼 수 있다는 정수남이의 꾀에 빠져 자청비는 정수남이와 동행을 한다. 그녀의 여리고 어린 여성적인 모습에 비해 정수남이의 음흉하고 억센 성격은 강한 대립을 이뤄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그녀는 정수남이에게 여지없이 농락 당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살인을 저지른다. 정수남이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정수남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 년아, 저 년아, 남도 낫지. 지집년이 사름을 죽이다니 너년은 놈의 집의 씨택(媿宅)가민 그만이여, 그 중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뎡은 허여준다.” <안사인본>

“지집년이 남도났져 듨도 들었져, 어떻 사름을 죽일 수가 시리 어서 나 중으로 돌아오라”. <이달춘본>

“이게 미신 말고? 가령남도 가령나다. 지집년이 즌청남도 즌청나다. 호로 콩 석섬가는 나 중 ㄴ져 오라. 호로 좁쌀 석섬 갈앙 불러 오는 나 중 ㄴ쳐 오라. 호로 대족씨 닷섬 가는 나 중 ㄴ져 오라.” <강을생본>

위 인용문에서 보여지듯이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집에 머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문도령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적극적으로 집을 나왔지만, 정수남이와의 동행은 <1차 가출-귀가>와 같이 긍정적인 가출이 아니라 부정적인 가출이었으며, 살인 후 집에 돌아

와서 자청비에게 가해진 그녀의 부모들의 냉대는 또 다른 가출을 하게끔 그녀를 인도하고 있다. 부정적 가출의 시작부터가 자청비가 고난과 고통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의 의미를 갖는다.

정수남이를 살려오라는 부모의 말대로 자청비는 다시 집을 떠나게 된다. 3차 가출이 시작된 것이다. <1차 가출-귀가>가 만족스럽고 긍정적이었는데 반해, <2차 가출과 귀가>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2차 가출은 <3차 가출-귀가>에서 보여지는 가출의 동기와는 달리 자청비 스스로 원하여 집을 떠난 것이었고, 가출의 동기는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3차 가출-귀가>는 부모들이 직접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자청비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존재는 안식처의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에 가서 그곳 꽃감관 말쑤딸아기와의 결혼으로 꽃을 훔칠 수 있었다. 죽은 정수남이를 그 꽃을 이용해서 살려 집으로 왔으나 그녀의 부모는

“지집년이 남도 낳져, 사람을 죽이꼭 살리꼭 흥는 년 이런 년 놓았당 집안 망칠 년이 로다. 어서 바빠 나고가라” <안사인본>

“아바님아 어머님아 즈식보다 더흔 종 살려오랴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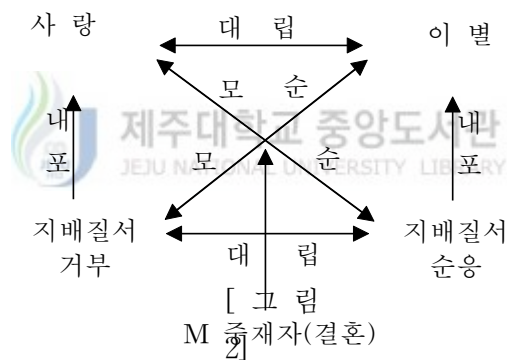
“어찌 이년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나? 양반의 집이 정거로다. 내 간 고장 나고가라. 열 다섯 시오세 예즈식은 출가외인이다 나고가라” <강순선본>

자청비를 쫓아낸다. 이것이 4차 가출이다. 집에서 내쫓김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인생은 바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인간 세상으로부터 추방은 자청비에게 지금까지의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기에 (- -)의 의미를 지니며 그녀의 고통과 고난은 한층 더 심화 되어 있다. <4차 가출-귀가>에서 집을 떠난 자청비는 주무할망의 보호를 받고 사랑하는 문도령을 만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문도령과의 만남이 무산됨으로써 그녀는 주무할망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게 된다. 그녀의 삶이 주무할망과 만남으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마침내는 인간적 삶을 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따라서 <4차 가출-귀가>는 자청비가 인간적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고통에 다다른 순간에 해당하고 가장 최악의 상태인

(- - -)상황임을 말해준다.

표면적 구조의 이야기는 자청비의 인간성에 맞춰 한 인간인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점차 고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구한 한 여자의 인생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인인 정수남이를 죽이게 되고, 하인을 죽였다고 집에서 내쫓김 당하고, 잠시 휴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양어머니한테까지 내쫓김을 당해 급기야는 중이 되는 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그녀의 인간적 고통의 삶은 마감하게 된다. 이처럼 표면적 이야기는 여성인 자청비의 삶이 하강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레마스가 제시한 이항대립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세경본풀이」의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면적 구조의 욕망갈등도> [그림 2]

이 작품의 표면적 이야기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평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두 남녀의 욕망 목표는 사랑 성취이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결합, 천상에서의 결합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차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지상에서의 1차 이별의 원인은 문도령의 혼담 때문이었고 그 혼담은 본인인 문도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의 부모선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천상에서의 2차 결합 역시도 문도령의 부모는 문도령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청비에게 엄청난 과제를 내어 그녀를 시험한다. 여기서 당시 사회 지배 질서는 혼인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결합은 내연관계일 뿐이기에 그들의 사랑은 인정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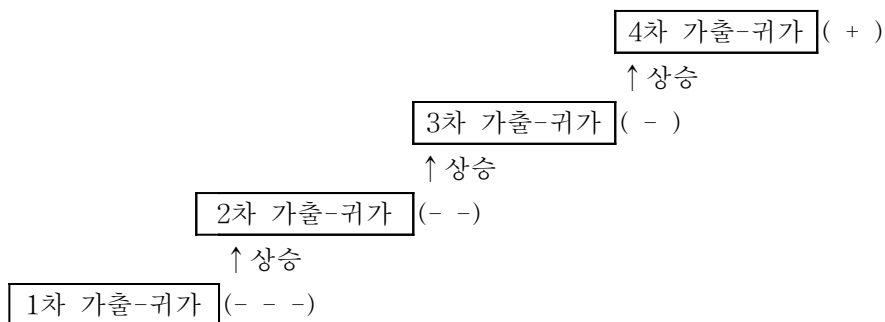
두 남녀의 욕망목표는 사랑인데 당시 지배질서는 사랑을 방해하여 이별을 조장한다. 따라서 사랑과 이별은 서로 대립관계를 이룬다. 지배질서에 순응하여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애기한테 장가를 가 버리고, 자청비 역시도 당시 지배질서에 순응해서 문도령과의 사랑을 포기했다라면 두 남녀의 사랑은 성취될 수 없었다. 하지만 둘 다 당시 지배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기에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 지배질서의 거부는 사랑의 성취로 이어지게 되고 이 둘의 관계는 내포관계이다. 지배질서의 순응은 지배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두 남녀의 이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배질서의 순응과 이별은 서로 연루되어 있고 둘의 관계 또한 내포관계를 이룬다. 이별과 지배질서 거부는 서로 수용될 수 없기에 모순관계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지배질서 순응도 모순관계이다. 그리고 지배질서 거부와 지배질서 순응은 대립관계에 있다.

문도령의 부모는 자청비가 며느리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M³¹⁾은 중간조정자로서 결혼이며, 두 남녀의 사랑을 완성시켜 갈등의 상황을 화해와 해결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2) 이면적 구조 [그림 3]

신성을 획득하는 상승구조



이면적 구조는 점차 상승구조를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면적 이야기에서 한 인간인 자청비가 신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31) 안성수(1989),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배따라기」, 「운수 좋은 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자청비의 혈통은 세경 할아버지가 “천왕제석”인 것처럼 하늘의 후손이다. 하지만 아버지대에 와선 평범한 한 인간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명칭도 “김진국대감과 즈진국 부인”이다. 이런 부모에게선 자청비가 결합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은 (-)로 작용한다. (-)을 (+)가 되는 과정은 자청비가 서서히 인간의 모습을 버려 신이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1차 가출-귀가>는 최악의 (- - -)상태이다. 이는 결합이 채워지지 않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기에 신적 모습이나, 혹은 신의 능력을 얻기 위한 어떤 발판도 없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 하는 자청비에게 가장 최고의 부정성으로 다가선다. 하지만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게 되어 사건의 발단은 이뤄지고 신성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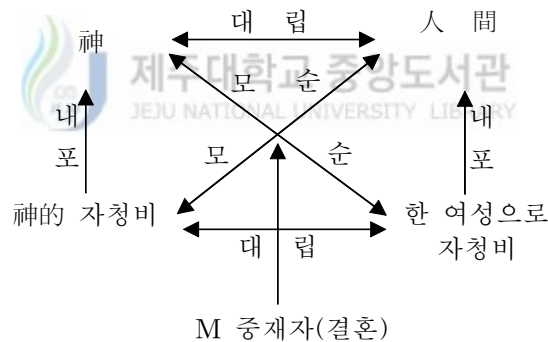
<2차 가출-귀가>는 자청비가 신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던지게 된다.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청비가 서천꽃밭을 향하게 되어 그 곳에서 꽃을 획득,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신적 능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기에 이는 <1차 가출-귀가>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조금은 신이 되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부분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자식보다 좋을 더 귀하게 생각해 정수남이를 살려 오라고 한다. 이것 또한 자청비가 인간성이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을 갖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2차 가출-귀가>는 인간적 모습만을 갖고 있는 <1차 가출-귀가>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 -)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차 가출-귀가>에서 드디어 꽃을 획득, 정수남이를 살리게 되는 것이며, 이는 준신적 능력의 소유로 볼 수 있어, <1차 가출-귀가>의 (- - -)적인 자청비의 신의 성격이 <2차 가출-귀가>에선 (- -)로, <3차 가출-귀가>구조에서 (-)로 점차 인간적 자청비의 모습에서 신적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4차 가출-귀가>에서 자청비가 주무할망에게서 보호를 받고 그녀의 수양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미모와 베 짜는 능력이 탁월해서였다. 아직도 인간적 모습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주무할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3차 가출-귀가>에서 서천꽃밭의 꽃을 획득한 것은 神的 能力의 獲得으로 자청비가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차 가출-귀가>에서 보여지듯이 아직도 자청비는 인간적인 여성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청비에게 불리한 요건이므로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버려야만이 인간적 모습의 자청비에서 온전한 존

재인 신의 존재로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래서 주무할망에게 쫓겨난 자청비는 마지막 인간성을 버리게 되고, 그 인간성을 버림이 바로 중이 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청비는 자체의 인간성을 모두 버렸다. 이제 그녀 앞에 남아 있는 것은 문도령과 완전한 만남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는 하늘 옥황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 시험의 통과는 바로 사회적 구성원이 인정하는 의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결혼이며, 바로 문선왕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즉 자청비가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내부에 있는 인간성을 모두 버리고 그런 후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둘만의 내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이 인정하는 결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면적 이야기는 결합의 존재로 태어난 한 인간이 신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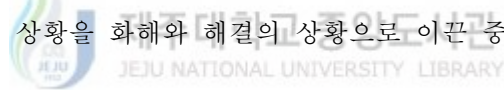
이제 그레마스가 제시한 이항대립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세경본풀이」의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면적 구조의 욕망갈등도> [그림 4]

이면적 이야기에서 자청비는 神인 동시에 신이 아니다. 神인 동시에 신이 아니라는 것은 자청비는 신과 인간의 모습이 자체 내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신의 모습이 자청비는 할아버지대의 혈통과 이야기 후반부의 신으로의 좌정에서 보여지며, 인간의 모습이 자청비는 神性이 없는 평범한 인간인 부모 밑에서 그리고 지상인으로 태어난다는 데 있다. 神과 人間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이 되어야 할 자청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인간성을 버리고 신성을 얻는 과정이 이면적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림 4]에서 보듯이 神과 인간은 서로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神的 자청비와 한 女性으로서의 자

청비 역시도 대립관계이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간성은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신성을 지녔음은 곧 신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은 신적 자청비를 바라고 이 둘의 관계는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또 한 여성으로의 자청비는 인간의 모습이므로 인간과 내포 관계를 이룬다. 인간적 모습과 신성을 지닌 신적 자청비는 서로 否定관계이고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모순관계이다. 또 신과 한 여성으로의 자청비 역시도 부정관계이고 공존할 수 없다. 신은 인간적 모습인 여성성이 존재해선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성이 제거되고 신적 능력이 부여되어야만 신이 될 수 있다. 1차 지상에서의 문도령과의 결합의 실패는 그녀의 인간성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 후 그녀는 그녀 안에 있는 인간성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스스로 인간성을 버려 중이 된다. 이 인간성을 버려야만 신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발판이 마련된 자청비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문도령과의 완전한 결합이다. 문선왕이 낸 엄청난 과제를 수행하고 난 후 자청비는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 결혼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공인을 받은 이 결혼이야말로 자체의 인간성을 모두 버리고 난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를 신의 존재로 만들어 주고 후에 세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게 해주는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화해와 해결의 상황으로 이끈 중간조정자인 것이다.



4) 구조에 나타난 기법과 의미

신화는 공동작이므로 신화의 작가는 신화를 향유하는 향유층이 된다. 「세경본풀이」의 작가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과 자청비의 과란만장한 인생의 역정을 작품 표면에 던져 놓고 결말에 가서는 신으로의 좌정을 그려 사랑이야기가 아닌 신의 좌정담으로 남게 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지상인 자청비가 천상에 올라 천상적 신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혼을 통해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신화의 향유층으로 작가의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이고 또한 동시에 뛰어난 예술성을 찾을 수 있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이야기의 변형원리로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본다.

(1) 트릭(Trick)기법

이야기를 진술함에 있어서 그가 기대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작가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작가가 의도하고 기대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작가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까닭은 이야기를 가장 흥미 있고 의미 있게 드러나게 하는데 있고, 그리하여 독자로부터 결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작가에게 이보다 중요한 목표는 없다.

작가는 이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작가들은 짐짓 탄청을 피우기도 하고 이야기의 순차를 뒤섞어 놓기도 하며 때로는 이야기를 숨기기도 한다. 심지어 작가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독자를 속이기조차 주저하지 않는다.³²⁾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작가는 전략을 세워 이야기의 의도를 숨겨 놓고 독자에게 이것을 찾도록 하고 있다. 독자는 어렵게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가는 도중에 흥미를 느낀다. 「세경본풀이」의 독자 역시 자신이 의도하고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게 된다.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방³³⁾(가창자)은 巫儀를 할 때 제상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해 간다. 그러니 본풀이는 巫覡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巫儀에서 노래한다는 면에서는 무가요, 그 내용의 신의 내력, 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신화가 된다.³⁴⁾

신이 되는 과정과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 하는 내용을 노래하면 신이 출현한다고 믿는다. 즉 초공신(巫祖神)은 초공본풀이(巫祖神話)를 노래하면 즐거워하여 출현하고, 세경신(農神)은 세경본풀이(農神神話)를 노래하면 출현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는 말도 같은 사상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서 신화는 신을 출현시키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신이 출현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고, 기원을 해도 효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풀이를 노래해 가는 것을 자세히 듣다 보면 다음과 같은 논법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産神神話인 경우는 “할마님은 이러 이렇게 하여 포태를 주고 해산을 시킨 일이 있

32)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436.

33) ‘심방’은 신의 刑房이라는 뜻으로 무당과 같은 의미임.

34) 현용준(1986), 전계서, p.273.

습니다. 할마님 힘으로 못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집안에 귀한 자식 포태를 주고 고이 해산시켜 주십시오”하는 論法이다.

이것은 본풀이를 노래하는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다. 즉, 본풀이를 노래하고 이어 기원하는 것은 신이 祈求事項을 능히 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대는 것이다. 이런 근거는 의례의 정당성과 기구 사항의 성취를 보증하는 기능이 있다.³⁵⁾

그렇다면 세경신의 내력과 해석 설명인 「세경본풀이」를 노래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세경’이란 地母 또는 穀母의 뜻을 지닌 신의 이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농경(農耕)·풍등(豐登)의 女神으로 상징된다. ‘자청비’가 지모(地母), 곡모(穀母)의 뜻을 지닌 신으로 생산·양육의 여신으로 상징된다고 하면 ‘문도령’은 천부·태양신·月神의 뜻을 지닌 남성신으로 창조(創造)·생명력의 신으로 상징된다고 하겠다. 이 본풀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경(農耕)·풍등(豐登)과 관련되는 서사무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이처럼 「세경본풀이」의 담당층은 이 본풀이를 가창하면서 세경신이 顯現되었음을 믿고, 세경신들이 그들의 기원사항인 풍요와 생산을 가능하게 해 줄 거라 믿었다. 즉 신화의 향유층으로 담당층의 의도는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와 함께 자청비라는 한 여자의 과란만장한 인생의 역정을 작품 표면에 던져 놓은 것이다. 두 남녀의 사랑담에 흥미를 갖게 해 놓고서 정작은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고 바라는 의도를 숨겨 놓았던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지상인인 자청비가 천상에 올라 천상적 신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혼을 통해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는 분명 작가가 자신의 의도인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남녀의 사랑담을 내세워 독자를 속이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작가는 트릭(Trick)의 기법을 사용,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패턴(Pattern) 기법

「세경본풀이」는 <가출-귀가>라는 구조의 이야기가 4차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 과정

35) 상계서, pp.276~278.

36) 진성기(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pp.15-16.

은 긍정적이고 만족스런 삶에서 점점 고난과 고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한 여인의 인생 과정이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이처럼 1차에서 4차에 걸친 <가출-귀가>는 단순히 반복적이고 나열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가출-귀가>의 의미가 행복한 현실적 인간의 모습에서 현실 세계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과정의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앞의 내용단락 ⑤에 와서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된다. 이는 점차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주인공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현실적 삶은 신으로 좌정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즉 4차에 걸친 <가출-귀가>의 의미는 신적 성격이라곤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한 인간이 부족한 神性을 채워 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인간적 모습의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죽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신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획득, 神性을 희망하게 된다. 하지만 주무할멈에게 수양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자청비 내에는 인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자체 내에 인간성이 남아 있으면 신이 될 수 없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중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 신이 되어 가는 마지막 과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즉 세경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신성 획득 과정이 1차에서 4차에 걸친 <가출-귀가>로 점차 상승구조를 이루며 나타나 있다.

패턴기법은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 motif, 심리적 독백 등과 같은 소설적 요소들이 한 작품의 내부에서 「연속」되거나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요소나 혹은 반복적 기교 그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때의 반복은 단순한 기계적 나열이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연쇄적이며 상승적인 반복, 즉 의미 있는 반복이라는 점이 이 용어의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된다.

생동감 있는 플롯의 제시를 통해 전통적으로 작가들은 패턴(pattern)을 중요한 서사적 기교의 하나로 구사해 왔으며, 주제의 효과적 표출이나 강조, 등장인물의 심리 및 성격의 구축, 그리고 경이로운 결말로 독자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 효과에 의존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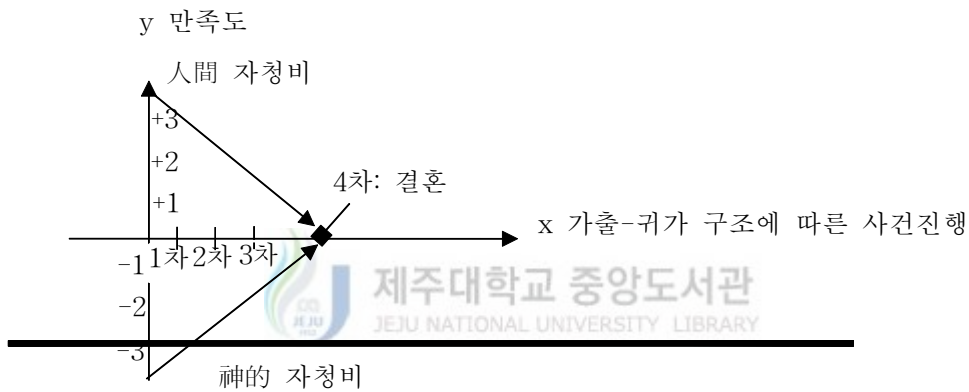
플롯의 기능을 위해 활용된다는 면에서 패턴은 작품의 의미가 해명되는 플롯 단계인 key-moment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패턴으로 짜여진 작품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효과적 key-moment를 통해서 선명한 기능과 의미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 작품의 구조는 허술한 것이 되고 만다.³⁷⁾

37) 한용환(1992), 전계서, pp.446~447.

위의 인용문처럼 「세경본풀이」는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로 나누어 볼 때 하강구조와 상승구조가 함께 어우러지는 패턴기법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 구조에서는 인간적 자청비의 삶이 하강을 그리다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뤄 절정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면적 구조에서는 신이 되어 가는 상승을 그리다가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신이 되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즉 작품의 의미가 해명되는 플롯 단계인 key-moment(결정적 계기)는 바로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 [그림 5]

여기서 'x축'은 가출-귀가 구조에 따른 사건 진행을 의미한다. 즉 1차, 2차, 3차, 4차의 가출-귀가가 이 'x축'에 해당한다. 그리고 'y축'은 만족도를 뜻한다. 자청비의 인간적 삶이 만족스러운 상태일수록 그 만족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신적 자청비에서는 신으로 접근하는 자청비의 모습일수록 만족도의 수치는 높게 나타난다. 인간 자청비를 상단에 그린 것은 표면적 이야기에서는 인간 자청비를 그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적 자청비를 하단에 그린 것은 시신적 자청비는 이면적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인간 자청비를 보여주고 있는 표면적 구조에서 <1차 가출-귀가>의 만족도는 (+3)이다. 이는 가출의 동기와 귀가가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등 가장 만

족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가출-귀가>는 인간 자청비에
 계는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2차와 <3차 가출-귀가>의 만족도는 (+2)와
 (+1)이다. 정수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그를 죽이게 됨으로써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 자청비는 고난을 경험한다. 그리고 죽은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장을 한 후
 서천꽃밭의 꽃을 얻어 획득한 신적 능력으로 그녀는 인간세상에서 추방당하는 더한 고
 난을 겪게 된다. 1차의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점차 겪게 되는 고난은 2차, 3차를 거치면
 서 점차 만족도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인간적 현실적 삶이 점차 힘들
 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4차 가출-귀가>에서 자청비는 중이 된다. 더 이상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없기에 인간적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인간적 자청비의 삶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만족도는 (0)이다. 하지만 인간적 삶의 처절한 순간에 문
 도령과의 결혼으로 인간 자청비의 고난적 삶은 마감된다.

즉, 인간 자청비가 겪었던 1차에서 4차에 걸친 <가출-귀가>는 반복적이고 단순 나
 열이 아니라 점진적 하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 계기로 보여지
 는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연결된다.

한편 신적 자청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면적 구조에서 신적 성격을 갖지 못한 채 태어
 난 자청비가 인간적 모습만을 지닌 채 가출과 귀가를 한 1차의 만족도는 신적 요소가
 전혀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 되기에는 가장 최악의 상태이다. 따라서 만족도는
 (-3)이다. 하지만 <2차 가출-귀가>로 정수남이를 죽이는 것에서 신적 성격을 획득할
 계기가 마련된다. 이는 <1차 가출-귀가>보다 신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해당하므
 로 만족도는 (-2)이다. 그리고 <3차 가출-귀가>에선 신성을 희망할 수 있는 신적 능력
 을 획득한다. 즉, 신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서천꽃밭의 꽃을 통해서 얻는다. 따라서
 3차는 2차에 비해 신에 더 접근한 상태를 보여주고 만족도는 (-1)이 된다. <4차 가출-
 귀가>에서 자청비는 중이 된다. 자청비가 중이 된다는 것은 그녀 내부에 있는 인간성
 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체의 인간성을 버린 자청비는 드디어 신
 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다. 그리고 문도령과 결혼은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를 천상
 적 존재로 만들어 준다. 신이 되는 과정들이 상승 작용을 하여 결정적 계기인 결혼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만족도는 (-) 벗어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만족도는 지금까

지 만족도에서 가장 최상의 만족도인 (0)이 된다.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를 신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고 그녀가 문도령과 문선왕과 같이 동급의 신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혼을 통해 가능했다.

위 [그림 5]에서 보듯이 신적 자청비를 그리고 있는 이면적 구조는 1차에서 4차에 걸친 가출-귀가를 통하여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신적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다가 문도령과 결혼으로 신의 반열에 들어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면적 구조 역시도 1차에서 4차에 걸친 <가출-귀가>가 단순 반복이고 나열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정적 계기인 문도령과의 결혼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경본풀이」는 지상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와의 결합으로 지상의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는 담당층의 의도를 이면적 구조 속에 담아 숨겨 놓고, 표면적 구조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야기와 그녀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겪었던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를 속이는 트릭(Trick)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청비의 인간적 삶의 하강구조라든지, 신이 되는 자청비의 상승구조가 가출과 귀가라는 패턴(pattern) 기법으로 처리되었고, 또 이때의 반복은 단순한 기계적 나열이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를 준비하여 이를 결혼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기법들의 사용은 이 작품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 내용 단락을 나눈 결과 전체 34개의 의미망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6개의 내용 단락으로 정리 되었다. (① :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출생, ② : 1차 가출과 귀가, ③ : 2차 가출과 귀가 ④ : 3차 가출과 귀가 ⑤ : 4차 가출과 귀가, ⑥ : 농신으로 좌정과 신직 발휘) 이들 내용 단락은 자청비가 출생 후 신직을 차지하기까지의 중심 내용들이므로, 이들의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자청비가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만이 아니라 내포된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2. 의 미

1)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출생

세경 하르방 천왕제석(天帝釋)
 세경 할망 지왕제석(地王帝釋)
 세경 아방 집진국대감
 세경 어명 즈지국 부인
 상(上) 세경은 문도령(文道令)
 중(中) 세경은 자청비(自請妃)
 하(下) 세경은 정이으신정수남이 <안사인본>

위 내용은 자청비의 혈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할아버지는 천황제석, 할머니는 지왕제석, 아버지는 집진국대감, 어머니는 즈지국 부인’에서 보여지듯이 천상와 지상의 결합으로 이뤄졌던 祖父母代에서 父母代에는 지상적 존재로서 대감과 부인이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평범한 인간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자청비 역시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성으로 태어나게 된다.

집진국 대감님이 송낙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상백미 일천석 중백미 일천석 하백미 일천석 대 추란미 꼬까마귀정루로 준준이 저울려 동개남 상서절에 원불수룩 드러간다. 아죽인 아죽 수룩, 낮인 낮 수룩, 즈낙인 즈낙 수룩, 흐를아자 삼식번 원불수룩 드리는게 석들 열흘 백일 뉘는 아죽원 대스중이 말을 호뎌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결량(百斤斤量)을 법당(法堂)에 왕 저울립서.”

대추남 꼬까마귀저울로 저울렸더니 혼 근(一斤)이 부족허연 백근이 못내차 아흔 아홉근이 뉘여진다.

대스중이 말을 호뎌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이 차아시민 남즈생불이 탄생 흘 듯한 디 백근이 못내 차난 예즈식 단생시겸시메 어서 집진국땅 들어강 하궁일(舍宮日)을 받아그네 부배간(夫婦間)이 천상배필(天上配匹)무읍소서. <안사인본>

이뿐 아니라 ‘무명반근을 덜어내고, 서개남이 무광절에서 수룩제를 지내서’, <강을생본>, ‘한근이 모자라고, 서개남금법당스님을 만나서’, <이달춘본>, ‘한근이 모자라서’, <고대중본>, ‘백근이 다 안차서’, <강순선본>, ‘백근에서 부족하여’ <한행수본>처럼 자청비의 탄생은 온전하지 않음을 모든 이본들에서 알 수 있으며 그 결합은 여자아이의 탄생으로 나타난다.

즉 자청비는 태어날 때부터 결합의 존재로 지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그 결합적 존재인 자청비는 그 결합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고 또 농신의 직을 받고, 신으로 좌정 하게 된다.

결합의 존재가 신이 되는 것은 신화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존재로서 지상의 인간들이 신성시하며 두려워하고 또 추앙해야 할 대상인데, 평범한 인간이라면 동급의 인간들이 숭앙하지 않을 것은 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청비는 결합 보충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천상의 후예이긴 하지만 부모대에서 천상과 지상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한낱 평범한 인간인 김진국대감과 조진국 부인에게서 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청비에겐 신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신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작품 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신이 될 수 있는 기반이란 자청비가 결합의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한 존재 즉 신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천상적 존재와의 결합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수남이의 출생담은 다른 이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박봉춘본>에서만 보이는데, 정수남이의 어머니인 정수덕이의 꿈 해몽을 듣고 스님이 예언을 하는 부분이 보인다.

일일은 김진국이 현몽하니 해몽자를 호출하여 해몽하라 하니 선몽자 왈 여자 생불하겠습시다. 정수덕이 또 현몽하얏다하니 네가 하몽을 보았느냐 소녀는 소주에 제육안주를 먹는 꿈을 보았습시다. 그러하니 김진국 영감이 욕을 하니 해몽자가 말하기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녀인은 남자를 생불하겠습시다. 말하고 <박봉춘>

정수남이는 후에 하세경의 신직을 받고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지상적 존재인 정수남이가 천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출생담이 있어야 하므로, <박봉춘본>에서는 정수남이의 출생담도 자청비의 출생담과 같이 보여지고 있으나 그 비중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는 「세경본풀이」가 자청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이본들에서는 정수남이의 출생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출생담은 기자정성으로 자청비가 탄생했으나 그녀는 신이 되기엔 결합을 지냈음을 의미하고 있다.

2) 1차 가출과 귀가

흐룻날은 즈청비 아기씨가 상단클에 앉아둬서 노념흐단 보난 느진덕 정하님 정술매이가 공단클 조긱디완 산 결보난 손발이 고와진다 즈청비가 말을 호웨
“는 어떤 일로 손발이 헤영하게 고와지느냐?”

“상전님이 혼일은 알곡 두 일은 모든 상전님이로고나. 주천강연못디 연서답을 가고 보민 손발이 해영하게 고와집네다.” <안사인본>

정술댁이의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물은 자청비는 여성성을 인지한 자청비의 모습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청비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청비 자신도 인지를 하여 주천강연못에 빨래를 하러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자신의 여성성으로 문도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청비 또한 문도령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 이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 나서는 것이다.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가출이 이뤄진다. 문도령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를 하고, 그 후 집에 귀가한 자청비에게 부모는 잘 하고 돌아온 자청비가 대견스러워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지집즉속도 글공비 제주공비 혼연 오랏쑤다.”
“집 문세도 맡으라. 밭 문세도 맡으라. 종 문세도 맡으라. 상속제도 매였구나.”
아바님진 들어가고
“아바님아 아바님아! 지집 즉속도 서월가고 글공비 제주공비 혼연 오랏쑤다.”
“밭 문세도 맡으라. 집 문세도 맡으라. 종 문세도 맡으라. 상속제도 매였저.” <강을생본>

이렇게 가출의 동기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데는 인간으로만 보여지는 자청비의 모습 때문이다. 여성성을 인지한 자청비가 문도령을 따라 갔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자신의 여성성을 표출했고, 공부를 잘 하고 돌아왔다고 부모님께도 인정도 받고 사랑하는 문도령과 밤도 같이 보낼 수 있었던 자청비는 모두 인간적 모습으로만 비쳐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보이지 않고 평탄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자청비는 결합을 극복해야 할 존재로 남아 있다. 천상의 존재와의 결합만이 자청비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밤을 함께 보낸다. 그러나 그들은 결합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지 못한다.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합이었지만 인간적 모습만으로 가득찬 자청비였기에 그녀는 신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결합으로 자청비가 神性を 획득했다면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신성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태어날 때의 결합을 해소하지 못한 자청비이기 때문에 둘이 헤어짐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 헤어짐으

로 자청비는 서서히 고난과 고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3) 2차 가출과 귀가

<1차 가출-귀가>의 의미가 표면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구조라면 <2차 가출-귀가>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이며 어두운 구조이다. 이는 하인인 정수남이로 인한 것이며, 자청비를 능욕하려는 정수남이와 이런 능욕에서 벗어나려는 자청비와의 갈등이 가장 고조되어 있다.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 헤어진 후 자청비는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합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정수남이에게 온갖 모욕과 농락을 당하게 된다. 여리고 여린 자청비의 모습과 음흉하고 건장한 정수남이의 갈등은 급기야는 자청비의 목숨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자청비는 <1차 가출-귀가>에서 보듯이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랐던 적극성이 있다. 이런 적극성은 여성임을 의심하여 소장이나 문도령이 제기했던 남성을 상징하는 모든 시험에서 이겼듯이, 뛰어난 재치로 정수남이의 욕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정수남이를 죽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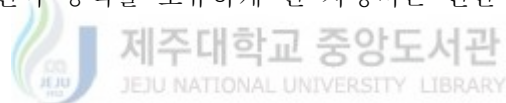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자청비에게 <1차 가출-귀가>에 비해 <2차 가출-귀가>는 고난이고 불행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청비가 신이 되기 위해 점점 접근해 들어가는 자청비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문도령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만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정수남이가 문도령을 봤다는 말을 듣고도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청비는 여전히 결합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그 결합의 존재란 한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하지만 자청비는 과감히 집을 떠나 문도령을 만나러 갔다.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벗어나려 하는 자청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2차 가출-귀가>의 의미는 인간적 자청비는 심화된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신이 될 자청비는 신성을 획득하기 위한 계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4) 3차 가출과 귀가

<2차 가출-귀가>에서 정수남이에게 농락 당하던 가너린 모습과 목숨의 위협과 정조

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던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서천꽃밭에 가서 그 곳 꽃감관의 말쑤말아기와 결혼하여 정수남이를 살릴 꽃을 몰래 훔친다.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꽃을 획득한 것이다. 평범한 인간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다. 자청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능력은 서천꽃밭의 꽃을 획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청비는 완전한 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神的인 성격을 보여준다. 신이 되기에는 결합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에서 점차 상승, 신적 능력을 획득하기까지에는 <1차 가출-귀가>에서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만남과 <2차 가출-귀가>에서 문도령과의 재회를 갈구하는 자청비의 적극성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신적 능력을 지닌 자청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청비일 뿐 온전한 신의 모습은 아니다. 부모님이 살려오라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동성혼까지 하면서 살려왔으나, 표면적으로 자청비의 고난과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오지만 이런 준신적 능력으로 인해 자청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부모에게서 다시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 즉 신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 자청비는 인간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5) 4차 가출과 귀가

부모에게서 쫓겨난 자청비는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자청비가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청비의 여성성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어찌 어여쁘고 고은 아기씨가 이런 밥질을 행하느냐? 어서 들어와 앉아서민 듯은 밥이나 허여주마”

주모할망 조왕간에 밥혀레 가분 새에 공단클 앉아 혼 세 두세 서꺼가명 공단을 짜가는 게 할마님 손매보단 더군다나 좋아져, 주모할망이 말을 허뵈

“이런 제주 아진 아기씨를 어찌 기냥 내보내리, 나도 즈식이 엇어지니 쉬양으로 들기 어찌하냐? < 안사인본>

할마님 곁는 말이 꽃ㄷ뽀 애기씨가 이 밤중에 어땡허난 걸음을 걸엄느냐. <강순선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능력이기에 인간세상에서 추방당한 자청비이지만 얼굴이 아름답고 배를 잘 찢다는 것은 아직도 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성성으로 인해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됨으로써 천상의 존재를 만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간적인 면이 있는 자청비가 그것도 빼어난 여성성을 내부에 지니고 있기에 그 둘의 만남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이 결합도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자청비 내의 결합 요소인 인간적 모습을 조금이나마 지니고 있다면 그 어떤 결합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여성성과 인간성을 버린 후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자청비가 신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문도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한다. 더더욱 처절한 것은 주무할망에게 쫓겨남으로써 그녀의 인간적 삶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을 이룰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면적으로 자청비에겐 가장 큰 고난이고 시련이다. 가장 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청비는 자신의 삶을 버리게 된다. 인간성과 여성성을 버림은 속세를 버리는 것이기에 자청비는 중이 된다. 인간적 자청비의 처절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 한편으로 신성을 획득해야 할 자청비는 천상과의 만남의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 것이지만 자체의 인간성을 갖고서는 천상과의 만남을 가져도 그녀의 목표인 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무할망에게 쫓겨남으로써 그제서야 자청비는 내면에 남아 있던 인간성을 모두 버리게 된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못 잊어 괴로워하던 중 궁녀들에게 자청비가 목욕했던 물을 떠오라고 시킨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궁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청비는 천상에 올라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천상에 올랐다고 자청비가 신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도령과의 완전한 결합만이 신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문도령과 완전한 결합이 남아 있다. 내연적인 결합이 아닌 사회적 결합으로 인간적 범주를 벗어나 신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신이 되지 못한 자청비에게 천상의 생활이 편안하게 전개되지는 못한다. 자청비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먼저 문도령에게 부모님을 뵙고 수수께끼를 하라 한다. 그러나 수수께끼의 의도를 눈치 챈 문도령의 부모는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과제를 제시했고

이는 인간이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문두령 어머는 드사릴 불르고 말을 흐되,

“서수왕 딸젯딸애길 이레 돌아오라.”

드사리가 간 서수왕 딸젯딸애길 돌아오난, 문두령 어머는 백탄숯불을 섬만이 흐게 살란 그 우테레 칼 쓴 드릴 흐여놓고 말을 흐되,

“아무라도 이 칼쓴드릴 바랑 하늘옥황 문선왕에 강 허배흐민 나 매누리가 분맹흐다.”

서수왕 딸애기광 츠청빈 실쪽실쪽 뒤물러스는구나.

“서수왕 딸애기부터 문저 이 칼쓴드릴 바랑 올라가라.”

“아이구, 난 죽음은 죽었주 이 백탄숯불에 짓별경흐 칼쓴드릴 말 수가 엇수다.”

츠청비는 옥황상제님께 축수를 드리는구나

“옥황상제님아. 저를 살리커건 비나 흐주제 느리와 줍서.”

흐여가난 고투작만이 흐 구름이 동실동실 터 오더니만 겹비가 흐주제 오는구나. 그영흐 난 칼쓴드리가 식언 츠청빈 그 칼쓴드릴 바랑 활딱 옥황으로 올라가는 게 <이달춘본>

백탄 숯불 위 칼선다리를 건넌 것은 자청비 뿐이었다. 서수왕따님애기는 건너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힘든 과제를 무사히 수행하고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혼한다. 결혼을 통해서 인간적 존재인 자청비는 태어날 때 지나고 있던 결함을 해소하게 된다. 결혼은 한 사회적 범주로부터 다른 사회의 범주로 옮겨가는 전이를 포함한다.³⁸⁾ 따라서 자청비는 인간적 범주에서 신의 범주에 들어서게 되고, 온전한 존재인 신이 된다.

이제 자청비에게 인간의 위태위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신으로서 당당한 모습만 남을 뿐이다. 과감히 문도령도 딸젯딸애기한테 보낸다.(소 내용 단락 5-3) 궁 안 사람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썩하려는 계획에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문도령을 살리는 데도 굳이 지상에 있을 때처럼 남장을 하지 않고 서천꽃밭에 가기도 한다. (소 내용단락 5-4) 신이 된 자청비는 남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남장이란 결합적 존재인 자청비가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변란이 났을 때도 자청비가 멸망꽃을 가지고 와서 평정하기도 한다.(소 내용단락 5-5)

자청비는 결혼을 통해서 신이 되어, 후에 농신의 직을 받고 지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자청비는 예전의 인간적인 존재로 귀가하는 것과 달리 4차 귀가에서는 다른 모습이다. 바로 신의 모습으로 귀가를 한 것이다.

38) 반겐넵(1985), 『通過儀禮』, 전경수역, 을유문화사, p.173.

자청비는 친절으로 가서 어명 아방왕의 이제까지 살아온 역스를 다 훑고 흐난
“아이구! 설론 얘기가. 느 살려온 중 드랑 가라 흐는구나. <이달춘본>

<이달춘>본에만 보이는 내용이다.

다른 본에서는 배고파하는 정수남이를 만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신의 모습으
로 지상으로 돌아오는 제 4차 귀가이다.

6) 농신의 능력 발휘와 좌정

자청비는 농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농신으로 좌정한다. 인정이 많은 밭에는 풍년을 주
고, 인정이 없는 밭에는 흉년을 주는 인간애적인 입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인간에게
농신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고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이로
좌정한다.



IV. 문학성 검토

1.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은 작품 구성의 구성요소로서 주제를 구현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³⁹⁾

소설분석의 방법론이 아주 세련되고 다양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설의 구성요소 중 인물 또는 성격이 아직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소설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대다수 이론가들은 인물분석, 좀 더 좁혀 말하자면 인물의 성격분석을 가장 흥미있는 대상의 하나로 꼽는다.⁴⁰⁾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이, 3인의 성격을 토대로 「세경본풀이」의 문예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8편의 이본들을 모두 텍스트로 보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본들을 이용, 각 인물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살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자청비

자청비는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청비는 인간이다. 평범하고 인간적이고 여성으로 태어나 훌륭한 여성성도 두루 갖춘 인물이다. 하지만 자청비는 지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존재가 된다.

단군신화에서 곰이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쉼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곰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호랑이는 곰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갖지 못했기에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짐승으로 남게 된다.

39) 우한용외(1996), 「현대소설의 이론」, 문학사상사, p.291.

40) 조남현(1980), 「小説原論」, 을유문화사, p.129.

자청비가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면서도 타 범인들과 다른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신이 될 수 있었다. 만약에 자청비도 단군신화의 호랑이의 짐승성과 같이 그저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면만 갖고 있었다면 농신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신이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청비에게 부여했고 그래서 자청비는 인간성과 함께 인간성을 뛰어 넘는 능력 즉, 神的 능력을 갖춘 인물이 된다. 그리고 그 후 자청비는 神이 되어 하늘의 존재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청비 인물의 성격을 인간적인 면, 神的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人間的 성격

여성으로서 자청비의 인물됨은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이 반할 만큼 빼어났다.

인간에 탄생하는 것이 여식(女息)이로써, 앞니망엔 햇님 뒷니망엔 돌님 양단독지 금상사별 오송송백인 듯 흐신 여즈식이 솟아난다. <안사인본>

자청비 애기씨가 물알에는 옥재들 같고 체비새 알아구기같은 애기씨가 되었더라. <고대중본>

여성으로 태어난 자청비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난다. 얼굴만이 아니라 후에 문도령을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세심함까지 드러나 자청비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다.

대주박에 물을 흔박 떠아진 수양버들 싹을 삼쉬번 훑어놓고 문도령안티 들고가니 문도령이 말하네 “도령님아, 혼일은 알곡 두일은 모른 도련이로노나. 급흔 질을 행하는 것 ㄱ타 목이 물르고 애가 쓴 듯 흐근데, 물이라 혼 건 목을 노아 먹다는 물에 체흐민 약도 엇는 범입네다. 물에 티를 노양 드리민 텃궁기로 물을 빨아 먹을 거난 물에 티를 노아 드렸수다. <안사인본>

이도령님 저도령님 혼일 알고 두일 모른 도련님 먼 질 걷는 도련님이 골아지길레 물을 길여와서 속히 먹다가 물에 체는 나면 약도 없는 범이라서 연시번 또리는 것은 진쉬가 골라았이라 연시번을 따리고 해치는 것은 연씨를 해칠라고 연시번을 해치고 청버드낭 싹 뜯어놓은 범은 자랑자랑 물을 먹다가 체를 허카푸다고 뜯어놓았네다. <고대중본>

이런 여성적인 세심함 외에 자청비는 또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문도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남장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는 자청비의 모습에서 그 당시 여성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인정이 안 되는 사회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 급기야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아바님아, 나 글 공부하러 가쿠다”

지집년이 남도 닐져. 지집년이 글 공부허영 뭐 하겠느냐?

“아이고 아바님아, 용허연 지집애기라도 우리 어디 오라바님이 있읍네까. 오래비가 있읍네까 딸아기라도 글공비 허엿당그네 아바님이나 어머님이라도 돌아가게 뉘민 지방 썩 부찌기 어찌 하겠습니까? <한행수본>

“아바님아 지집즈속은 공비를 못흐는 법이우까?”

“공비 못흐는 법이사 엇주마는 공빈 흐민 미신 것에 씨느니?”

“계민 부무님네 돌아가시민 축지방을 녹 빌영 썰 겨우짱?”

김진국대감님은 즈청비가 축지방 썰 말을 ㄱ라사

“지집즈속인들 무사 공빌 못흐느니? 어서 흐여지건 흐여보라.” <이달춘본>

그리고 문도령과의 결합에서 자청비가 주도하고 있다.

문도령님아, 내가 여즈의 몸으로써 오늘갓장 도련님 눈을 속여시나망정 우리 집 먼 올레 사아 시민 아바님 어머님에 글 공취(工夫) 가아온 선안을 디려두고 저의 방으로 ㄱ찌 강 아픈 다리나 쉬엿당 널날가기 어쩍네까? <안사인본>

여성인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속여 문도령을 그녀의 방으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남성인 문도령보다 더 적극적인 구애의 모습은 자청비의 적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청비이지만 하인인 정수남이에게 여지없이 농락당하는 모습은 여리고 가녀린 한 여성일 뿐이었다

“나 이 범벅 찬 못먹키여, 느 먹는 범벅을 나를 훗솔 도라.”

“상제님 그거 미신 말이우짜? 상제님 먹단 음식은 종이 먹는 법이우다. 종이 먹단 음식은 개가 먹는 법이우다. 상제님 개될쿠가?”. <이달춘본>

정수남이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자청비는 급기야는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기에 이른다.

정이어신 정수남이 물을 좇안 상제님아 상갯님아. 요물을 먹젠 흐민 우알로 옷을 먼 들랙기 벗엉 노아 두어근 손발 적시시 말앙 하늘 옥황더레 궁둥이 내여노앙 였더정 물을 먹어사주 손발을 적정 물을 먹게 웨민 더 목이 킁킁 더 몰라져 살수가 어서 집네덴 흐난, 얼마나 목이 물르고 얼마나 물을 먹구정 해여사 옷을 먼짜 벗어 노아두언, 였더정 물먹는 순간에 정이어신정수남이 즈청비 옷 흐짜 아사단 노픈 낭 우의 간 문딱 지쳐부렀구나. 정이어신정수남이 지쳐두언 이녀은 편두롱하게 샀구나. <강순신>

음흉하고 무자비한 정수남이에게 자청비는 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가녀린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도 보인다.

“이 놈을 살렸다는 나가 먼저 죽을 테니 이 놈부떠 먼저 죽이자.” <안사인본>

(2) 神的 성격



자청비는 지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신이 되기에 이른다. 이는 자청비의 인간적인 면 이외에 신적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청비는 인간 이면서도 다른 범인들과 다른 어떤 탁월한 능력을 지녔기에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자청비의 신적 능력이 보여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청비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사람을 살리는 부분으로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흠쳐 정수남이를 살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초체를 노았더니 굴미굴산 지픈 곳 정수남이 죽은 덜 좇아가니 브레여보난 풀이 덤 방허여시난 은장도칼 내여 놓고 동서레레 비여 잣현 환승꽃을 노안 종낭막뎡이로 삼시 번을 후렸더니…… <안사인본>

여기서 자청비는 정수남이 죽은 곳에 가서 환승꽃을 놓고 막대기로 삼세 번을 후려 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 행하여 정수남이를 살리게 된다.

선녀 삼인이 울고 잇는지라 우는 리유를 무르니 자기네들은 하늘 옥황에게 죄를 지어 인간에 나려 가서 터진 동이로 이 못을 다 푸어도고 오라는 명령에 나려 오랏스나 엇지 터진 동이로 이 물을 다 푸겠습니가하니

자청비가 터진 동이를 노코 하늘을 향하여 축수하니 터진 구멍이 막아지고 그 못물을 다 푸어주니 선녀 삼인이 감사하다하고 <박봉춘본>

위의 인용문처럼 선녀의 어려움을 자청비는 하늘에 축수를 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 역시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문도령으로 하여금 그의 부모님께 수수께끼 내기를 하라고 하는 데서도 그녀의 신적 성격은 나타난다.

즈청비 애기씨가 아명허였자 아니웨염직 허여가난 즈청비 애기씨가 문도령신디 곁는 말이

“어머님 아바님신디 강 새 장이 좁네까, 묵은 장이 좁네까. 새 옷이 좁네까, 묵은 옷이 좁네까 허영 예숙 드리건 새 옷은 셋번은 존나만은 묵은 옷 만이 못 흥댕 흥거드랑 새 장개 못 가쿠댕 굴아뵈 읍서예”.

자청비는 뒤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미리 선수치는 선견지명까지 보이고 있다. 이 또한 평범한 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청비는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존재인 신이 되어 신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시험이란 평범한 인간이면 감히 해 낼 수 없는 과제이다.

솥을 수천석 깔아 놓고 선대 자 칼선다리를 지어 백탄 솥불 위에 놓아 그 다리를 건너 옥황 문선왕에 허배하고 다시 그 칼 선 다리를 타서 내려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백탄솥불에 칼선드린 짓벌경케 불이 붙었구나, 즈청빈 배옥곶은 낫디로 주충곶은 눈물이 증반에 염주짓듯 다룩다룩 떨어지명 하늘에 축수를 흐는구나

“맹천헌 하늘님야 죄사 싶거든에 홀연 강풍이나 불어줍서. 죄가 옷거든에 대오방 수천리 비나오라줍서. 정이웃인 정수남이 행실이 부랑허여 죽인거나 밖인 옷습네다.” 용삼시번을 하늘옥황데레 축수를 드리난 동방으로 삼시에 고향착만이 흐 검은 구름이 동실동실 터 오더니만 대오방 수천리 비가 오니 <강을생본>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청비는 평범한 범인이 아닐 뿐더러, 자청비가 하늘에 축수를 드린 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 등은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청비의 성격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작중인물(주인공)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평면적 인물은 쉽게 認知되고 또 독자가 비교적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평면적 인물은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인물은 다시 소개할 필요도 없고 또한 독자의 상상력이나 이해의 범위 밖으로 달아나지도 않으며 더욱이 발전이란 거의 없다는 그런 종류의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입체적 인물은 어떠한 비극적 역할이라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독자를 움직여서 어떤 감정이건 갖게 해 주는 힘도 지닌다. 그런가 하면 입체적 인물은 인생의 무궁함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⁴¹⁾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입체적 인물이다. 자청비는 외모와 함께 섬세한 여성적 성격을 지녔다. 문도령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자, 그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여성이 공부 허락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한다거나, 남장을 하여 문도령을 따라가는 것들은, 자청비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인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치 있고 똑똑한 자청비가 일개 하인인 정수남이에게 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모습은 그 전의 자청비의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가녀리고 연약한 자청비의 모습과 음흉하고 건장한 정수남이의 대립으로 독자들은 잔뜩 긴장하게 된다. 이 긴장감의 유발은 입체적 인물이 독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 전에 보여준 자청비의 적극적이고 재치 있고 능력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청비의 연약한 모습에 기인하여 그녀에게 닥친 상황을 독자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인 양 인식하면서 자청비의 고난과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이 주는 생동감과 긴장감은 자청비의 입체적 성격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청비는 인간적 모습에서와는 또 다른 신적 성격을 갖게 된다. 죽은 정수남이를 살리는 것, 하늘 옥황 선녀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늘에 축수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 준 것, 백탄 솟 불 위에 놓인 칼선다리를 내려오는 것 등등은 그

41) 상계서, pp.149~150.

녀가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그녀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신의 능력인 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섬세하고 세심한 여성적인 성격에서 문도령을 따라 나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하인인 정수남이에게 당하는 자청비의 모습은 연약하고 가련한 여성의 이미지로,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으로, 서천꽃밭의 꽃을 획득하여 정수남이를 살리고 무시무시한 문선왕이 내는 시험에 통과하는 모든 것들은 자청비가 입체적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격을 종합한 것이 자청비이기 때문에 인물의 입체성은 뚜렷해지며, 또한 그녀는 입체적 인물만이 가능한 독자들에게 경이감을 주고 인생의 무궁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문도령

문도령은 자청비가 인간적인 면 외에 神的인 면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비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평범한 인물로 나타난다.

구비서사시인 「세경본풀이」는 풍요와 생산을 위한 의례에서 불려진다. 그리고 풍요와 생산을 맡고 있는 세경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중세경인 자청비이다.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과 결합은 풍요와 생산을 의미하며, 이 풍요와 생산의 기원이 이 본풀이의 구연 목적이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는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적 존재가 되어 농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도령은 이미 하늘의 존재임을 작품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는 문도령이 천상적 공간에 속하는 신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상적 존재로 태어나 천상적 존재가 되는 자청비와는 다르다. 따라서 문도령에게는 신적 존재가 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그는 신이기 때문이다. 신적 존재로 되는 과정이 필요 없는 문도령이기에 그의 성격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또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이 천상적 공간에서가 아닌 지상적 공간에서 그의 활동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가 천상적 존재인 신이지만 지상적 공간에서는 지상적 존재의 모습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적 공간에서 문도령의 모습

은 어느 지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인간적이고 평범한 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또 사건 진행이 문도령보다 자청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청비의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지상적 공간에서 더더욱 인간적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 래야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청비가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문도령은 천상적 존재이지만 천상적 존재인 신의 모습보다는 지상적 존재인 인간적 모습으로 그려졌다 하겠다.

그럼 인간적 모습인 문도령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적이고 평범한 문도령의 모습은 자청비가 빨래를 하는데 그 미모에 반해 수작이라도 해 보려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얼굴이 천하 일색이여! 이제나 저제나 남즈이 기슭으로 츄마 그냥 넘어갈 수 엇고나
“애기씨도 곰도 곱다! 물이나 훗솔 도라 먹영 가져.” <강일생본>

어찌 저런 아가씨를 노아두고 지나가리. 말이나 한번 일러보고 지나가져 <안사인본>

심리가 자연이도 미인에게 쏘이게 되어 <박봉춘본>

자청비가 아는 척을 하지 않자 심술까지 부리는 행동을 보여준다.

조청비는 문본것처럼 훗명 스담을 훗여가난 문국성 문도령은 심술을 부려 조청비 스담하는 앞데레 간 청충매 머릴 확 돌리멍 물을 꾸제겨부는구나. <이달춘본>

남즈의 기분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어서지난, 츄침츄침 들어산, 말이라도 곱아보져 물훗적이라도 얻어 먹어 가보져 츄침츄침 들어산다. <강순선본>

문도령의 모습은 지상의 평범하고 인간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순선본>과 <이달춘본>에서는 그런 문도령의 모습이 극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문도령은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 외에 여타의 무속 신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처럼 성급하며 이기적인 인물이다. 자청비가 물을 떠 주는데, 물 속에 버들잎을 집어넣어 떠 줄 때도 자청비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자청비의 마음이 얼굴 같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성격의 성급함과 사려 깊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자청비와 2차 이별에서 보이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손가락의 아픔과 피 내움에 얼굴도

보지 않고 가 버리는 부분에서는 부정하면서도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본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에 사름 땡길 곳 아니로다. 부정(不淨)서정 만흐다”. 기냥 돌아사 하늘옥황 올라 간다. <안사인본>

문두령은 송까락이 아푸난 회를 내고 옥황테레 도올라 가부난 <강일생본>

날낭내내여 날피내여 곱기는 하나마 마음이 고약하다. <박봉춘본>

문두령은 “아가기여!”

흐명 송까락을 확 빼연 보난 자주피가 불끈 난다.

“에이 부정흐 년 흐군!”

문도령은 흥삿배를 ㄴ전 옥황으로 도올라간다. <이달춘본>

놀뵈네 나다 놀랑내 나다 금시상 인간이 아니라 하늘옥황으로 올라사부는고 <고대중본>

무정한 성격은 서천꽃밭 말쑤딸아기한테 폭 빠져 자청비를 잊어버리는 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청비가 애를 쓰고 전갈을 흐되

「아바님 어머님이 병이 나서 스경에 일렀읍내다」

거짓말 전갈을 흐였더니 문도령이 올라온다. 안거리에 가명보니 아바님도 편안흐고 어머님도 편안흐여시니 자청비신데레 「어떻게 살았느냐?」 말도 없이 느려가부는고. <고대중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도령의 우둔한 성격이다. 연 삼 년 동안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하면서도 자청비가 여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끝내 그녀 자신이 여자임을 밝혀야 알게 된다. 그리고 문도령을 속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청비가 고안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믿어 공부에서도 자청비에게 밀리게 된다. 그 우둔하고 아둔하고 조심성 없는 성격은 급기야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저런 병신이사 될 약을 놓아시린!”

그 술 혼잔을 반안 흑기 드리싸 먹고…… <강을생본>

문도령의 성격은 하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성격, 무정하고 이기적인 성격, 우둔하고 조심성 없는 성격을 보여주므로써 문도령보다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자청비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작가들은 성격창조를 피함에 있어 보통 작가가 직접 표면에 나서서 해당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건이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⁴²⁾ <이달춘본>이나 <강순선본>에 나타나는 문도령의 성격묘사 방법은 간접적 제시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자청비가 듣는 척도 아니하자, 심술까지 부리는 행동은 간접적 제시 방법을 통해서 문도령의 성격을 암시해 주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성격을 극적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학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무속신화이다. 신의 내력과 해석 설명이다. 따라서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에 관한 내력과 해석 설명이다. 세경신이라고 하면 상세경인 문도령, 중세경인 자청비, 하세경인 정수남이가 있는데 이 세 세경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세경신은 자청비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중세경이 되는 자청비의 이야기인 것이다. 인간적 존재인 여성이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하늘의 존재와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사회적으로 공인해주는 의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청비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도령은 자청비의 상대역이고 작품 진행에 있어서 주요 인물의 역할은 아니다. 따라서 자청비가 주요인물이라면 문도령은 보조인물에 해당한다.

대체로 작가들은 주요 인물(major figure)을 그리는 경우와 소인물(minor figure)을 그리는 경우 각각 다른 방법을 취하곤 한다. 전자는 대개 복합적이면서 입체적인 방법으로 그려지는데 반해 후자는 주요 인물을 좀 더 돋우어 보이기 위한 보조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면적으로 묘사되곤 한다.⁴³⁾

이 작품에서도 자청비는 입체적 인물로 문도령은 평면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 여성 영웅 상대역의 문도령의 성격을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조금은

42) 상계서, p.130.

43) 상계서, p.131.

모자란 듯이 보여서 여성영웅인 자청비가 더욱 더 빛나게 하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고대문학의 잔형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무속신화이다. 그러나 담당층의 의도적인 여주인공의 입체적 인물의 성격과 그 상대역인 문도령의 평면적 인물의 성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주요인물은 입체적 인물로 보조인물은 평면적 인물로 성격 창조를 하여 흥미와 재미를 더해주고 있고, 또 이 작품이 주는 긴장감과 생동감은 여주인공의 입체적 성격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물의 성격 창조는 과거나 현재나 소설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무속신화에서 위의 내용과 같은 인물의 성격창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의 문학성이 뛰어난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세경본풀이」의 문예적 가치이다.

3) 정수남이

정수남이의 신분은 하인이다. 하인은 주인 자청비에게 복종해야 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조롱하고 심지어 능욕하려 한다. 신분적 질서가 뚜렷하고 엄격한 봉건사회제도 하에서 하인이 상전을 능욕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용납 될 수도 없는 것인데도 「세경본풀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 하인의 신분이지만 상전인 자청비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정수남이의 모습은 바로 당시대의 담당층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담당층들이 피지배층이라면 상전인 자청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정수남이는 신적 성격의 정수남이가 아니라 당시대의 현실 속에서 이 작품을 향유하고 전승하는 전승민들이기에 이는 전승민들과 똑같은 동급인 인간적 성격의 정수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이도 자청비처럼 신이 된다. 그렇지만 정수남이가 하세경의 신직을 받아 좌정하게 되는 것은 자청비와 비교해서 사뭇 다르다. 자청비는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어 마침내 신이 되고 신직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정수남이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과정이 없이 하세경의 신직을 받고 신의 서열에 선다. 정수남이도 성격적인 면에서 신이 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인간적 성격만 가지고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정수남이도 神的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정수남이의 신직은 하세경이고 이는 목축신이다. 목축신이 되기 위한 신적 성격은 정수남

이의 인간적 면 외에 또 다른 성격적 면이다.

정수남이의 성격을 인간적 면과 신적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人間的 성격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가 상전인 자청비를 조롱하고 능욕하는 점에서 당시대의 전승민들이 지배층에 대한 항거로 본다면 정수남이의 인간적 성격은 한 마디로 춘향전의 방자나 봉산탈춤의 말뚝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상전인 자청비를 능욕하려는 정수남이의 야심에서는 그 두 인물보다 더 강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정수남이는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꺾어 재치가 엿보이는 인물이다. 이런 정수남이의 성격이 보여지는 대목은 소, 말을 다 잡아먹고 빈 몸으로 오자 자청비가 죽이려 드니 재치 있게 문도령을 산에서 보았다고 하여 자청비를 속이고 데려가는 부분이다.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보면 정수남이와 자청비가 갈등하는 부분들이 전체 「세경본풀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수남이의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게 무슨 말일러냐? 춤말 문도령이 와서냐? 어느제 또 오키엔 허여니?”

“모릿날 스오시 또 오키엔 홉네다”.

“게민 내 강 만날 수 있겠느냐?”

“아기씨 상전(上典)님이 가민 더군 조아홀 겁네다”.

정수남이 몰 드러세우명 몰 안장 지울 때 비인 구쟁잇닥살 흥나를 몰 등에 노연 몰 안장을 지와 놓고

“상전님아 다 뤼엿수다. 어서 나옵서” <안사인본>

정수남이는 하인의 신분이지만 신분상 하인일 뿐 상전을 속이는 재치와 꺾기가 가득한 인물이다. 상전인 자청비를 속여 데리고 가는 데도 이미 자청비를 능욕할 것을 미리 계산해 놓고 점심도 자신이 먹을 것은 짜지 않게 준비하라 하고 자청비가 먹을 것은 짜게 준비하라고 한다.

정심을 내여 난 상전 정심 상전 앞의 놔두고 이녁(自己) 정심 이녁 아전 상전 눈을 피호젠 흥난

“이놈아, 어찌 너만 강 먹자 흥느냐?”

“흥일은 알곡 두 일은 모른 우리 상전님아. 안 사름(知人)은 보민 중광 상전이엿 허

여도 모른 사람은 보민 오누이(男妹)엿도 호곡 두갓(夫婦)이엿도 홉네다.”

정이어신정수남이 아이구 손이사 어디레 가논고 호민 즈청비 젓가심드레도 시리실짜 들어가젠 호여간다. 즈청비 알더레도 들어가젠 해여가난 <강순선>

정수남이는 上典인 자청비를 마음껏 조롱해 대며 풍자하고 있다. 말도 이치에 맞게 하고 있다. 이치에 맞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정수남이 앞에서 자청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당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뛰어나고 탁월한 자청비의 모습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고 정수남이에게 조롱당하는 자청비의 모습만 보인다.

(2) 神的 성격

정수남이는 하세경이 되어 목축신이 되는 인물이다.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신이 될만한 어떤 능력이 정수남이에게도 드러나게 마련이다.

정이어신 정수남인 이만호민 어찌호리 절로 죽은 삭달남 오름만이 제거놓고 멩개낭자왈 고소웨 삼안 곳죽 예염내어 작박꺾든 손뿔으로 베겨아진 호 줌 꼬창 불레레 진영 익어서 나 호 줌 설어시나 호 줌 먹단 보난 쉼 아옴 몰 아옴은 간 곳이 엇어간다. <안사인본>

평범한 사람 같으면 소 아홉 말 아홉을 익었는가 한 점 설익었는가 한 점 하긴 해도 다 먹지 못한다. 정수남이가 소 아홉 말 아홉을 다 먹는다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는 하세경의 신직을 받게 되는 정수남이의 신직과 연관되는 정수남이의 신적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오늘은 물이 성식이 난 것 꺾우다.”

“어찌하여 성식이 났겠느냐?”

“상전님은 오늘 굴미굴산 가민 문도령님 만나근 좋은 영화를 누리건마는 물이사 무슨 영화가 있으리까? 애쓴 걸음만 홀 것 꺾난 성식이 난 것 꺾네다.”

“그래면 성식을 안내게 홀 순 엇겠느냐?”

“어서 바빠 밭도 아옴동이 국도 아옴동이 출려농곡 술도 아옴동이 출려노양 석자오 치 몰머리수건 호곡 돛머리 출려노양 몰머리코스 지답서.” <안사인본>

정수남이는 말머리고사법을 마련했다. 신화는 전통적인 사회의 집단 생활에 대한 거

의 모든 현실적 체험을 망라한다. 그것은 주술적(呪術的) 종교적 신앙이며, 풍속, 관습이며 생활양식이기도 하다.⁴⁴⁾ 정수남이가 평범한 인간적 속성만 가지고 있더라면 ‘말머리고사’라는 한 민족의 생활양식으로 꾸준히 내려오게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준신적 능력이 있었기에 주술적이고 종교적 신앙의 한 형태인 말머리고사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神的 性格은 人間的 性格을 지닌 정수남이의 또 다른 성격의 일면이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들은 피지배층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동일시한다. 즉 작품 속 주인공들의 신분의 고하는 전승민들이 신분의 고하를 의미하여, 상전인 자청비는 전승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배계층을, 하인은 정수남이는 전승민들의 입장에서 피지배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인인 정수남이가 상전인 자청비를 조롱하고 농락하려는 모습은 바로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수남이를 통해 보여준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은 당시대인들의 삶의 모습의 반영일 수 있으며, 그 삶이 바로 신분제약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한 항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당층이 등장인물인 정수남이의 성격 형상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했던 것은 바로 말뚝이로 대변되는 계급들의 반항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 것이라 보여진다.

15C 경에 이룩된 양반 관료 국가의 성립은 16-17C에 들어 경제체제의 해이와 양반 관료간의 대립과 분열, 그리고 외족의 침략 등으로 점차 양반 관료체제의 해이를 가져오다가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양반 사회는 붕괴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정치구조의 변질과 수취체제의 개편, 사회구조의 변화에 직접 그 원인이 있으나, 그 밖에 서양문물의 전래로 의한 의식의 확대와 실학사상의 발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반체제의 붕괴는 자연 민중의식의 성장과 확대로 이어져 민중의 봉기를 가져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⁴⁵⁾ 또한 이러한 원인 외에도 민중들은 제도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로 인한 인위적 재난을 끝없이 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집단 행동을 통하여 관리의 가렴주구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은 제도의 문란과 관리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대답이었던 것이다.⁴⁶⁾

44) 왕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p.19.

45) 한우근(1985),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pp.207~369.

현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충동이 문학 행위를 유발시킬 때 현실비판적 시점이 문학현상 속에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⁴⁶⁾

제주도의 서사문학을 본풀이가 담당한다고 했을 때, 「세경본풀이」의 하인인 정수남이는 봉건 지배질서에서 피지배층을 형상화했고, 상전인 자청비는 지배층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능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피지배층들이 지배층인 양반에 대한 반항과 항거로 조선시대 후반의 사회 현실이 문학현상 속에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정수남이가 상전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대목들은 18C 후반 그 당시 사회배경이 자연스럽게 「세경본풀이」에 배태된 것이고 정수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당시의 민중들의 의식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던 것이다.

정수남이의 인물은 자청비와 문도령과의 관계 속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로 주목된다. 비록 정수남이의 인물이 신분적으로 상전에 예속되었지만, 작품 내에서 상전으로 관계를 맺은 자청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행동과 언사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상하의 주종관계를 무너뜨리고 주동적 인물로 상승하고 있다. 담당층은 정수남이를 자청비와의 관계에서 주동적 인물로 상승시키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삽입시킬 뿐만 아니라 민중의 공감 속에서 자라온 민중의 목소리까지도 적극적으로 작품 내에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봉산탈춤의 말뚝이와 정수남이는 양반을 조롱하는 주체인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그 당시 민중들이 느꼈던 양반에 대한 반항의식을 정수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형상화하고 있고 봉산탈춤에서는 말뚝이가, 춘향전에선 방자가 하고 있다. 각 작품의 인물 명칭만 다른 뿐이지 이들 인물이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봉건질서에 대한 배격이며, 가림주구하는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인데, 이들 인물들이 작품에서 상대역과의 관계에 있어 보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 인물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당시대의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해내는 역을 담당하고 있다.

46) 趙眺(1982),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218.

47) 서종문(1982), “19세기 한국문학의 성격”,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p.168.

제주도에서는 본풀이가 중심적인 문학 장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어야 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어야 했다는 것은 작품을 향유하는 민중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와 시대적 배경이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에 반영되고, 이 무속신화의 문학 창작의 주체가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한 하층민의 불만과 저항은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서 당시 민중들의 양반계층에 대한 항거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의 항거의 주체는 정수남이며, 정수남이는 바로 민중을 대변했던 인물로 창조되었다.

2. 공 간

「세경본풀이」에서 공간은 지상계와 천상계 그리고 서천꽃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화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이 되는데, 그 추상적 방향은 설화 속의 인물의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설화의 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공간에 위치하는데, 이 공간은 그들의 본질적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상적 공간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닌 인물의 공간은 지상으로 한정된다.⁴⁸⁾

자청비는 지상적 인물로 태어난다. 그녀가 태어난 곳이 지상이기에 그녀는 지상적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됨과 동시에 지상인이 된다. 이에 반해 문도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이다. 하늘에서 거무 선생한테 글을 배우러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그는 하늘의 존재로 있었기에 그는 천상적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됨과 동시에 천상인이 된다.

공간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자질일 뿐더러 이야기의 심미적 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공간은 인물과 행동에 신뢰감을 높이고, 브룩스 위렌은 「소설의 이해」에서 ‘사실감 있게 구축된 배경은 그 배경 속에서 활동하는 인물과 행위의 사실감을 보장해 준다’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듯한 공간은 그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조차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⁴⁹⁾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문학

48) 송효섭(1999),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p.247.

49) 상계서,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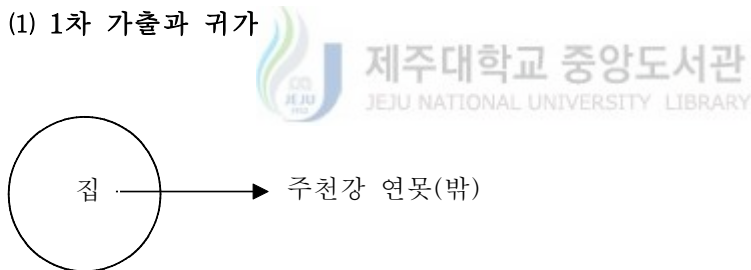
을 통해서 독자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심지어는 작품의 존재 이유가 된다.⁵⁰⁾ 그러므로 공간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지상적 공간과 문도령이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천상적 공간, 그리고 인간 생명의 본원적 장소로서의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등장한다.

연구자는 「세경본풀이」의 공간과 의미를 4차에 걸친 <가출-귀가>에 나타난 공간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각 공간 이동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각 1차에서 4차의 <가출-귀가>에 사용한 도형들은 송효섭의 「설화의 기호학」⁵¹⁾에 나타난 도형을 원용하였다.

1) 가출-귀가 구조에서 본 공간과 의미

(1) 1차 가출과 귀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자청비는 집에서 밖으로 가출을 시도한다. 그 가출의 이유는 정술택이가 손발이 고운 이유 때문이다. 빨래를 하면 고와진다고 하자 그녀 자신도 손발이 고와지기를 바라며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간 것이다. 같은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이동이다. 집에서 주천강 연못으로 가는 것이다. 주천강 연못은 물이 있는 곳이다. 물은 세계 전체의 근원이며, 잠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로서 일체의 형태가 발생하는 원초적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도 가능하게 한다.⁵²⁾ 창조가 가능한 물이 있는 주천강 연못

50) 김화영편(1986),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p.148.

51) 송효섭(1999), 전계서, p.248

52) 현원필(1999),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지도 연구- 제주 서사무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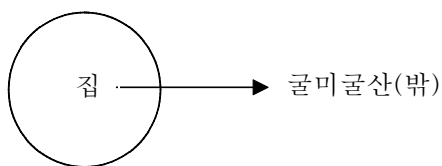
으로 간 자청비는 그 곳에서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기반 마련은 바로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는 것이다.

여성성을 인지한 자청비가 집밖으로 나가지만, 이는 표면적 이야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면적 이야기에서 집 밖으로의 이동의 의미는 집 안이라는 공간 속에선 결합의 존재로 밖에 지낼 수 없기에 자청비는 결합을 채우러 집 밖으로 공간이동을 한 것이다. 집 밖, 주천강 연못에서 그는 천상적 공간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문도령과의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결합만이 자신의 결합을 던고 온전한 존재로 될 수 있기에 자청비는 집 밖으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1차 가출에서 그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지만 천상의 존재를 만날 수 있어 주천강연못이라는 공간은 자청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공간이 된다. 표면적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과, 이면적 이야기에서 그녀가 신이 되기에 필요한 하늘의 존재를 만났다는 것은 공간이동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공간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창조도 가능하게 해 준 물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귀가'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공간이동이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공간 이동의 목적은 중요성이 덜하다는 생각에서이다.

(2) 2차 가출과 귀가



두 번째의 가출의 동기는 정수남이로 인한 가출이다. 자청비가 마련해 준 소, 말 열여덟 마리를 모두 잡아먹고, 옷도 도둑 맞고 빈 몸으로 돌아온 정수남이를 자청비가 죽이려들자 정수남이는 거짓으로 문도령을 산에서 봤다고 한다. 그래서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러 정수남이와 함께 집을 떠나 산으로 향하게 된다.

즉 집 안에서 집 밖인 산으로 공간이동이 나타난다.

숲이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정수남이는 계속해서 자청비를 회롱하여 자기의 안락과 식욕을 채우고, 급기야 주인인 아기씨를 성적으로 회롱하기까지 한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정수남이는 아기씨를 단지 성적대상으로 본다. 평상시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관계 때문에 감히 넘볼 수 없었으나, 숲의 고립된 공간에 들어서면서 그의 야수성이 발동된 것이다.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위계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것이다.⁵³⁾

집 안이라는 공간은 자청비에겐 상전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심어주고, 정수남이에겐 하인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심어준다. 정수남이한테 자청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이며, 조롱하거나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욕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하지만 산이라는 공간은 정수남이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공간은 정수남이한테는 긍정적이고 안식으로 다가서는 공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후에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목축은 산이라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산에서 정수남이는 그의 본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었으며, 이 산이라는 공간에서 그는 작품의 주동인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전인 자청비를 마음껏 비웃고 있는 것이다.

삶은 행위의 진행으로 나타나며, 그 진행 가운데 공간적 이동은 주인공이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⁵⁴⁾ 자청비의 1차 가출인, 집 안에서 물가로 공간적 이동은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했고 주천강 연못이라는 공간에서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났다. 이는 분명 긍정적 공간이동이다. 하지만 2차 가출은 집 안에서 산으로의 공간 이동인데, 산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정수남이에게 농락당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분명 이 산이라는 공간은 자청비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2차 가출에서 보이는 공간 이동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서는 것은 아니다.

이면적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 안이라는 공간은 신이 되어야 하는 자청비에겐 결핍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정수남이의 말에 정수남이의 안식처라 할 수 있는 산으로 공간이동을 한다. 집 안이라는 공간이 자청비에겐 결핍의 공간이었고, 정수남이의 말에 산으로 공간이동을 하는 자청비의 목적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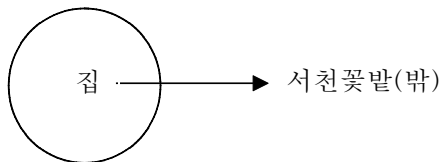
53) 윤교임(1989), “여성영웅신화 연구-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p.71.

54) 송효섭(1999), 전계서, p.245.

로 결핍의 존재를 벗고 온전한 존재로 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곳은 자청비에겐 부정적인 장소였고, 상전과 하인이 전도되는 상황에서 정수남이에게 조롱과 농락을 당하다, 그를 죽이게 된다. 자청비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집 안이라는 공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집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식을 보면, 집 중심의 안과 밖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집을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고 집에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안식처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곳으로 인식된다.⁵⁵⁾ 집으로 대변되고 있는 김진국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인간적 삶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녀가 정수남이를 죽였다고 해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은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살인을 한 자청비는 인간적 삶을 대변하는 집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정수남이에 의한 산으로의 공간이동은 자청비에겐 결핍의 장소인 집이라는 곳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집 안이라는 공간은 결핍의 장소이므로 이 공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신이 될 자청비에겐 긍정적 의미로 다가선다.

(3) 3차 가출과 귀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청비는 다시 집을 떠나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공간이동을 한다.

큰곳내의 신화에 나오는 서천꽃밭은 인간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꽃들이 피어 있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키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들 꽃들을 가리켜 ‘생명꽃’이라고 한다면, 서천꽃밭은 바로 이런 呪花로서의 생명꽃들이 피어 있는 신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명꽃들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이란 바로 인간 생명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서천꽃밭은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끝맺게 했던 생명원천의 특수공간이며, 제주

55) 최길성(1989),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pp.104~105.

도 큰곳 속의 신화를 형성한 집단이 창조해낸 바의 독자적인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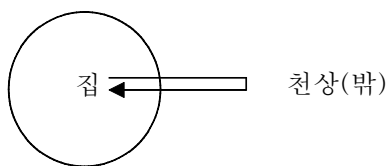
「세경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이미 생명꽃이 피어 있는 기존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된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이 곳으로 가 거짓으로 사위가 되어 생명꽃을 몰래 훔쳐와 정수남이를 살린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은 꽃이 피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 피어 있는 생명꽃은 아무나 함부로 딸 수 없다. 이 꽃을 얻기 위해서 자청비는 이 꽃밭에 해를 주는 부영이를 잡아주고 그 곳 꽃감관의 말갯딸아기와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꽃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몰래 훔쳐냈다. 자청비에게 이 공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주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갖게 된 것이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청비가 생명꽃을 획득한 것은 이 공간이 그녀에게 주는 神的 能力에 해당하며, 이 곳에서 자청비는 神의 人間이 된 것이다.

이제 자청비에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이며, 이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청비는 집 안이라는 공간에서 처음 이동한 집 밖 주천강 연못에서 하늘의 존재를 만났고 정수남이를 따라 간 산에서는 신적 능력 획득의 계기로, 서천꽃밭으로 이동은 신적 능력 획득으로 나타난다. 즉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감으로써 점점 평범한 인간적 모습에서 신으로 이행하고 있는 자청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4) 4차 가출과 귀가



자청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집에서 쫓겨나 주무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을 만날 수 있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주무할망에게서도 쫓겨난다. 마침내 자청비는 속세적 삶을 버리고 중이 된다. 하지만 공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늘에 오른다. 천상의 공간에 자청비가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상의 집, 지상의 연못,

지상의 산, 또 생명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들이 공간이었지만, 4차 가출과 귀가에서는 하늘이 작품 무대로 등장한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집 밖의 공간인 하늘에 오른다. 지상에서도 문도령과의 결합이 있었고, 천상에서도 문도령과의 결합이 있었지만, 그 결합은 내연적 관계의 결합일 뿐 사회적으로 공인된 결합이 아니었다. 문선왕이 제시한 며느리가 될 엄청난 시험에 모두 통과한 자청비는 문선왕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고, 천상의 존재로 신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즉 자청비는 하늘의 존재인 신이 된 것이다. 이것은 천상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이 된 자청비가 하늘에 변란을 막은 공으로 열두시만국과 오곡씨를 갖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처럼 「세경본풀이」는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집 밖인 주천강 연못을 거쳐 굴미굴산에서 천상으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神性を 부여하는 서천꽃밭에서 꽃을 획득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아 훗날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공간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집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상의 소유주이고, 서천꽃밭은 신성을 부여받게 되는 천상의 공간으로 대우주에 속한다. 지상에는 그 외로 주천강 연못과 굴미굴산이 있는 바, 이는 천상의 존재와의 만남과 神性を 부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

집 안이라는 공간 속에선 결합의 존재로 밖에 지낼 수 없기에 자청비는 결합을 채우러 집 밖으로 공간이동을 한다. 여기서 공간 이동한 집 밖의 주천강 연못은 창조가 가능한 물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을 만났다는 것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굴미굴산은 정수남이의 안식처이기에 자청비에겐 부정적인 장소였고, 시련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청비로 하여금 결핍의 장소인 집에서 멀어지게 하여 새 생명의 탄생, 죽은 생명의 환생, 행복 등 불행보다는 행운의 요소가 가득찬 공간으로 나타나는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서천꽃밭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자청비가 천상적 공간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청비가 안의 공간(지상)에서 밖의 공간(천상)으로 그리고 다시 안의 공간(지상)으

로의 이동은 결국 밖의 공간(천상)이 안의 공간(지상)에 활력을 넣어 죽음으로부터 삶, 혼란으로부터 질서로 변화하게 하는 힘의 발휘를 보여준다.⁵⁶⁾

자청비는 세경신이다. 세경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풍농를 상징한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알맞은 기후 조건 등은 농사를 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상의 기후 조건들은 농사를 위한 필요한 요건이므로 하늘이라는 밖의 공간은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생물체에겐 절대적이다.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의 공간에 올라 신이 되어 천상에 머물지 않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지상이라는 공간에서 결핍된 것들을 천상의 공간을 통해서 지상의 결핍이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2) 공간이동을 통해서 본 현실주의 사고

1차에서 4차까지의 <가출-귀가>를 통해서 공간 이동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상적 존재로 태어난 자청비가 천상의 존재가 되고 후에 세경신의 신직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이동했던 공간 속에서도 신이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신이 된 자청비가 천상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신직을 행한다는 것에서 향유층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농사는 하늘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특히 제주도의 토질은 회갈색인 화산재로 이루어졌고 자갈과 돌이 많아 농사짓기에 부적절한 토지다. 가뜩이나 척박한 토양을 일구어 어렵사리 지은 농사마저 여름철이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었으며, 가을철이면 또 태풍이 싹 쓸어가 버리곤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가뭄이나 홍수가 찾아오지 않아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제대로 거두었다 하여도 워낙 척박한 토질 때문에 연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제주에는 편평한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벼농사를 거의 짓지 않았다. 제주도 전체 넓이의 27%가 경작지인데, 밭벼라고 심어 거둘 수 있는 밭도 거의 없어서 농부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이런 토양 조건은 농사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하늘은 지상의

56) 송효섭(1999), 전계서, p.255.

57) 문순덕외(2001), 「제주 여성 문화」, 제주도, p.285.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지상적 공간의 존재가 천상적 공간의 존재가 되어 다시 지상적 공간으로 내려와 주었다는 것은 지상적 공간의 부족함을 천상적 공간의 존재로부터 그 부족함을 메꿔 지상적 공간에 이익을 주게 한다는 현실주의적 사고가 이 작품에는 담겨 있다.

문도령은 천상인이다. 자청비가 천상에 올라 문도령과의 결혼으로 천상인이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인들의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 지상인들의 풍요와 풍농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제주 무속 사회에서는 많은 신을 섬기지만, 본풀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들이다.⁵⁸⁾ 농업과 관련된 자청비는 바로 제주인들의 食과 관련되어 있다. 食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므로, 농신이 되는 자청비는 무척 중요하다. 인간적 삶의 조건인 농신인 자청비가 하늘의 세계인 신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내려와 직접 지상인들과 살면서 지상인들의 食을 관장하는 농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이 작품의 현실주의 사고관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작가의 현실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으며 이런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공간의 이동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작가와 향유층의 현실주의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이 작품의 문예적 가치를 살필 수 있다.

3. 주 제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로 나뉘듯이 주제 역시도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표면적 주제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이야기이다. 당시 사회 지배 질서가 두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질곡을 거듭하였지만 그들이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지배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극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와 문도령이 신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할 때, 신화의

58) 강정식(1988), “濟州巫歌 이공본의 口碑敘事詩의 性格”,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무속 대학원, p.35.

의미상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신화학적 방법에 따르면 농경신의 유래를 다루는 유래담인 「세경본풀이」에서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의 혼인은 새로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은 ‘팽돌이’로 나타나고 그 ‘팽돌이’가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도령과 자청비의 혼인은 풍요의 속성을 내재한 셈이 된다.

단군신화에서 천상적 존재인 환웅과 지상적 존재인 웅녀가 혼인을 하여 나타난 결과는 단군의 출생으로 드러났지만 그 단군은 지상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인간의 풍요를 의미하며, 바로 ‘팽돌이’가 농사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등장인물을 신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볼 때 그 주제는 자연적 의미로는 풍요와 인문적 의미로는 인간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랑으로 보아 마땅하겠다.

따라서 표면적 주제는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을 당시 지배 질서인 결혼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더 중시되는 사회적 구조와 결부시켰다. 남녀간의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같이 존재한다. 어떤 시대엔 존재하는 이야기이고 어떤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남녀간의 사랑은 비역사성을 띤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에서는 모두 나타나는 話頭이기 때문이고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한해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역사성의 성격을 지닌 남녀간의 사랑은 시대적 특성과 결부되면 또 새로운 사랑이야기로 변하여 당시대인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사회 지배 질서는 당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낸다. 즉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결정적이고, 당사자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회 지배 질서는 결혼에 있어 두 남녀의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이다. 따라서 결혼에 있어 본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적 특성은 더 이상은 현대의 시대적 특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더 존중받는 지배 질서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으로 역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적 주제는 비역사적인 남녀간의 사랑과 역사적인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당시 지배 질서가 결합되면서 당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지배 질서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전승민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주게 된다.

표면적 주제는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이야기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독자들에
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 역사적인 사회 지배 질서와의 만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세경본풀이」의 표면적 주제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이다.

이번에는 전승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전승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전승민
들의 삶의 방식의 반영이라는 점은 앞에서 밝혔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자청비와 문도
령의 삶의 방식이 전승민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의 반영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이것은 구비 전승되는 구비서사시의 특징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다만 무속의례에서 노래 불러지고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남
성보다는 여성이 주라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대의 농경의례
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한 쪽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도령과 자청비에 관한 사랑
이야기는 풍요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신화적 사고가 시대를 따라 통치 이데
올로기와 문화 발전과 더불어 의문시되면서 신성성은 차츰 희박해져 왔다. 그러는 가운
데 남녀가 같이 모여 제천의식을 행하고 군취가무하던 그런 놀이 방식이 남성은 남성
중심의 의례, 여성은 여성 중심의 의례로 분리가 되면서 그 신성성은 많은 변화를 초래
했다.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통치자는 인간이 대신하게 되고 여성신과 남성신의 갈등은
인간 남녀의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의 작품은 고
려 시대의 생활 방식을 드러내겠고, 조선시대의 작품은 조선시대 전승민들의 삶의 방식
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나 「홍부전」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가족 관계나
남녀 관계, 당시대 민속 현상 등을 살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므
로 이 작품이 어느 시대를 반영한다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의
방식으로 그 주제를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 문도령이나 정수남
이가 아니라 자청비로 인식되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인간에서는 「세경
본풀이」라 하지 않고, 「자청비 이야기」라 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자청비가 주인공
이라는 점은 그 전승민들의 여성 중심을 말하는 것이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전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은 여성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바뀌 말하면 자청비는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전승자인 제주도 여성들의 반영인 셈이다. 자청비는 출생에서부터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남성 못지않는 적극적인 인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남장까지 하여 따라 나선다거나, 먼저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임을 밝혀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밤을 보내기도 한다. 사랑에 있어서 무척 적극적이었다. 정수남이에게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산에 올라 그에게 겁간을 당하려고 할 때,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문도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것은 여성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청비는 지상적 존재로서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과의 혼인을 갈망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 남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에서의 삶이 아닌 천상에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청비는 춘향이가 이도령과의 혼인을 통하여 신분상승을 이룩하려는 것과 같이 문도령과의 혼인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룩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이면적 주제는 계급을 타파한 인간적 해방인 것이다.

즉, 이면적 주제는 현실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인간해방이 그 주제이다.

자청비는 결함의 인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녀가 겪는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은 실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괴로움이었다. 자청비가 결함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픔과 괴로움이 수반된 것이다. 무속신화의 향유층은 상층민이 아닌 하층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삶 역시도 자청비의 삶처럼 결핍된 인간의 삶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다.

신화의 주체는 신화를 전승하는 전승민이 되고 향유하는 향유층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다. 특히 무속신화는 현실의 인간적 고통과 고난을 신의 힘을 빌어 위안을 삼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려진다. 그들이 피지배층이라면 현실적 삶의 만족은 더 갖기 힘들며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전승민들이 과거 조선시대 피지배층이라면 그들의 현실적 억압과 고통은 봉건 제도하의 신분 제약이 주는 억압이 가장 큰 고통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분 제약으로 인해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면적 주제의 역사성은 신화 향유 주체가 당시대에서 느끼는 억압과 고통의 삶이다.

이 작품에서 자청비는 현실의 결핍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천상인이 된다. 천상인이

되어 결핍된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 결핍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현실적 삶을 살아간다. 천상인이 되기 전의 현실적 삶과 천상인이 된 후의 현실적 삶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천상인의 된 후의 현실적 삶은 앞의 현실적 고통과 억압을 제거한 삶이며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삶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이 신화를 전승했던 전승민들은 봉건 지배 질서인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적 삶을 희망했을 것이다. 이렇듯 현실적 고난과 고통이 시대마다 또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현실적 고난에서 벗어나 만족한 삶을 원하는 인간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므로 현실적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간해방은 어느 한 시대에나 어느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같이 존재하므로 이는 비역사성을 띠는다고 하겠다.

신화는 고대문학의 시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인간해방이야말로 비역사성을 지닌 것이며, 그러기에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삶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질곡의 삶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이 이 작품의 이면적 주제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각 시대에 따라 당시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작가의 개성에 의해 수 없이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그 작품을 접한 독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와 흥미와 감동을 준다. 또 한편으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통을 접하게 마련이고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해방의 바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이다. 「세경본풀이」는 사랑과 인간해방을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담아내고 있으며, 이런 점이야말로 이 작품이 면면히 흐를 수 있는 원동력이자 문학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4. 자청비와 제주여성

굿과 그것을 주재하는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문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여성들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것으로 전통적 여성 문화의 중심에 놓인다. 따라서 굿의 구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통 사

회 여성들의 특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⁵⁹⁾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 중 「세경본풀이」는 일반적으로 큰굿 속에서 풍요기원을 위한 제차에서 치러지며, 풍농을 위한 ‘멩감’이나 혹은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맞이, 영등굿 혹은 우마증식을 위한 마블림제 등과 같은 당굿에서 불려진다. 굿에서 불려지는 「세경본풀이」 연구를 통해서 전통 제주 사회 여성들의 특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바로 제주 여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담아내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이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는 모습들은 바로 제주 여인들의 삶 그 자체였다.

‘새벽에 일어나 듬북 한짐 지여다뉘 밥 궤왕 먹엉 밧더레 강 밧일 허당 물 때 되면 바당에 강 물질허영 집에 왕 물허벅지영 물질러 간다’. 라는 말에서 제주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달밤에 유채 베고 낮에 보리 벤다’는 말이 있다. 이 모두가 여자들이 하였던 생활의 일부이다. 특히 여자들은 새벽부터 한 밤중까지 일에 파묻혀 살았다. 밭일에, 물질에, 집안 일까지 오로지 다 여자들의 몫이었다.⁶⁰⁾

그러다 보니 그녀들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여자로 나느니 쉼로 나주⁶¹⁾’ 속담은 여성 비하의 속담이다. 여자로 태어난 삶이 가축인 소로 태어난 삶보다 못하다는 소리이다. 제주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가혹했기에 이런 속담까지 생겼으리라 본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가축인 소보다 못한 존재의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제주 여성들은 이런 삶 속에서도 그녀들만의 삶의 극복방식을 만들었고 그것은 곧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다.

제주도는 일만 팔천 신의 신들의 고향이다. 신들의 고향이란 말처럼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 제주도다. 왜 그리 많은 신들의 고향으로 제주도가 불리게 되었을까?

제주의 흙은 70%가 검거나 회갈색인 화산재로 이루어졌고 자갈과 돌이 많아 농사짓기에 알맞지 않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발갈이를 생선에서 뼈를 발라내는 것 같다고 말하여 왔다. 가뜩이나 척박한 토양을 일구어 어렵사리 지은 농사마저 여름철이

59) 한창훈(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 연구」, 제 15집, p.86.

60) 문순덕외(2001), 전계서, pp.334~335.

61) 상계서, p.131.

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었으며, 가을철이면 또 태풍이 싹 쓸어가 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해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해가 번갈아 섬을 찾아오기 때문에 제주 흉년이 되었다.⁶²⁾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무엇인가를 소망하였을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지탱요소가 많은 신들로 나타난 듯하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신들의 이야기는 곧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제주 여성들은 여신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녀들의 삶을 비추었고, 동시에 여신들의 삶을 그들 나름대로 그녀들의 삶에 맞추어 만들어갔는데 오랜 세월 속에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주의 開闢神話라고 널리 알려진 高梁夫 삼성의 신화에 세 명의 공주,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백조할망, 삼신할망, 조왕할망, 가문장애기, 산방덕이, 노가단풍 아가씨, 애기할망, 토산당의 뱀여신 등 등 자청비외에도 많은 여신들이 있다. 위 여신들 중 제주 여성들이 좋아하는 자청비도 그 많은 여신들 중 하나이다.

자청비는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인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남장까지 하여 따라나선다거나, 먼저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임을 밝혀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밤을 보내기도 한다. 사랑에 있어서 무척 적극적이었다. 정수남이에게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산에 올라 그에게 겁간을 당하려고 할 때,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이면서도 남성성을 상징한 시합에 있어서도 남자보다 앞서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청비의 모습은 작품 곳곳에서 수없이 보인다.

실제적으로 제주 여성들은 집안 내적인 일 못지 않게 밭농사, 바닷물질 등 외적인 노동에도 남자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녀 자신들은 늘 경제적인 주체로서 인식과 자부심으로 여성들의 강인성이 표출되곤 했다. 제주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강인성은 곧 그녀 자신들의 삶의 자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강인성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자청비의 삶에 대한 적극성은 곧 제주 여성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적극성인 것이다.

제주여성의 적극적인 면 이외에 여성적인 면 또한 지니고 있으며 이도 자청비를 통

62) 상계서, p.285.

해 살필 수 있다.

여성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는 자청비는 제주여성들의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투쟁성으로 뚝뚝 뭉쳤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남장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성을 지녔지만, 여성임을 잊지 않고 여성적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제주 여성들은 바로 자청비라는 한 인물을 만들게 된 것이다. 자청비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외형적 조건과 고유한 여성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일들에 대한 감동과 찬사를 경험하고 안다. 그녀는 여성이 가지는 매력과 장점을 알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줄 안다.⁶³⁾ 정술택이의 손발이 고운 이유를 묻고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간다든지, 문도령이 물을 요구했을 때 물 바가지에 버들잎을 떨어뜨려 물에 체하는 것을 면하게 한다든지, 문도령과 함께 지낼 때,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은 것이라든지, 주무할망의 수양딸로 있을 때 비단을 잘 짠다든지, 문선왕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놓았던 과제 중 본 없이 버선, 쾌자, 도폭을 잘 지은 것 등은 자청비가 삶에 대한 적극적인 면 이외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여성들은 비록 노동에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여성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태어나서 갖게 된 여성성을 꾸미고 가꾸 아름다운 여성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섬세함과 매력적임, 거기다가 지혜와 재치를 함께 지닌 여성으로 하늘의 존재인 문도령과 같은 남성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비단을 짠다거나, 옷을 짓는다거나 하여 웃어른들께 사랑도 받고 싶었을 것이다.

여성성으로 비춰진 자청비의 내용들은 바로 제주여성들의 여성성으로 바로 제주여성들의 여성상인 것이다. 제주 여성들은 삶에 대한 적극성 못지 않게 자신들의 여성적인 면을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결혼을 통해서 신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하늘에 변란을 해결해 줘 땅 한 쪽과 물 한 적을 관장하는 남성적인 수직지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곡의 씨앗이라는 여성적 수평생산의 원리를 선택했다.⁶⁴⁾

자청비는 중세경의 신직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 신직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점심으로

63) 김정숙(2000), 전계서, p.48.

64) 상계서, p.50.

싸 온 밥을 정성껏 대접한 두 노인네에게 풍년을 주고 인정이 없는 밭에는 흉년을 준다. 수직적 지배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인정이 많은 두 노인에게 풍년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데에서 자청비는 인간애적인 인물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인물, 소박한 정을 사랑하는 인물로 형상화된 자청비는 곧 제주여성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청비는 전승, 향유과정에서 제주 여성들의 정서의 축적에서 이루어진 소산임에 틀림이 없다. 곧 제주 여성들은 자청비의 삶과 행동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거나 답아가고 또한 문화 전통과 역사 속에서, 제주여성으로서의 그들만의 인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곧 신화 속의 인물은 향유층의 정서, 전통의 집합 속에서 이루어져 탄생한 신적 인물임과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적 인물이며 이상형이기도 한 셈이다.⁶⁵⁾

척박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노동 현장에서 살고 있는 제주 여성들은 삶과 사랑에 있어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시에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을 경시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여성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출하고, 힘과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풍요와 생산으로 더불어 잘 살려는 그녀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경본풀이」를 통해 드러냈다.

또, 그들은 그들만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자청비라는 여주인공을 창조하였던 것이다.

65) 좌혜경(1998), “조청비, 문화적 영웅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집, p.182.

V. 결 론

인간은 오랜 동안 신화를 통하여 우주와 인류 그리고 문화에 대하여 그들의 세계관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본 생각을 표현하였다.⁶⁶⁾ 그리고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된 무가에는 무속 종교의 우주관, 인간관, 역사관 등이 가치체계가 춤, 노래, 신화, 연극 등으로 녹아져 소박하게 담겨 있다.⁶⁷⁾ 그 중 무속신화인 서사무가는 원시시대 서사문학의 출발점에서 시작된 문학 장르로서 오늘날까지 전승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중의 흥미를 돋우고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⁶⁸⁾

연구자는 지금까지 논의 전개에서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문학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8편 이본에 존재하는 단락들을 모아 기본형을 추출하였다. 그래서 8편의 이본들을 기본형만으로 된 이본, 또는 기본형 이외에 2단락이 더 첨가되어 있는 이본, 또 기본형 이외에 1단락이 더 첨가된 이본들로 묶어 [아형 1], [아형 2], [아형 3]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형만으로 된 [아형 1]은 신화인들의 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형 1]인 기본형에 13, 14단락이 더 첨가된 [아형 2]에서는 구연자의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폈다. 그리고 [아형 3]은 [아형 2]가 구연자의 기억상의 혼란으로 나타난 형태였다.

2.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의미를 살폈다. 8개의 이본 중에서 주자료를 <안사인본>으로 삼아 34개의 의미망으로 분절하였다. 34개의 의미망을 다시 6개의 큰 구조로 묶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6개의 큰 내용 단락 중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단락을 중점적으로 구조와 의미를 살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구조에서 이중성을 보였으며, 그 이중성을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구조로 나누었다. 표면적 구조는 인간 자칭비의 인간적 삶이 1차에서 4차까지의 <가출-귀가>과정 중에 점차 하강하고 있었고, 이면적 구조는

66) 왕빈(1980), 전계서, p.17.

67) 민속원(2001),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p.239.

68) 서대석(1979), 전계서, p.4.

신이 되는 과정인 신적 자청비를 그렸는데 1차에서 4차까지의 <가출-귀가>를 통해 상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중적 구조에 맞춰 의미도 살폈는데 표면적 의미는 인간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이면적 의미는 결합인 존재인 자청비가 결합을 딛고 천상적 존재인 신이 되는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세경본풀이」의 문학성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항목을 4개로 두었는데, 첫째는 등장인물의 성격, 둘째는 주인공들의 공간 이동을 통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의 표현, 셋째는 이 작품에 나타난 주제, 넷째는 자청비와 제주여성과의 관련성이다.

첫째, 등장 인물의 성격은 등장 인물 중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이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자청비는 인간 자청비와 신적 자청비로 나뉘어 살폈는데, 인간 자청비를 담당층이 입체적 인물로 그려 작품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보여주었고, 그 상대역인 문도령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평범한 인물로 그렸다. 작품의 주요 인물인 자청비를 입체적 인물로 그 상대역인 문도령을 평면적 인물로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뛰어난 문예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수남이는 당시 전승민들이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을 형상화했다.

둘째, 주인공들의 공간이동에서 본 문학성 검토이다.

천상적 존재인 문도령은 하늘의 존재이므로 신이고,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는 땅의 존재이므로 인간이다. 그리고 자청비는 결합의 존재로 이 지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녀는 지상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천상에 올라 천상인이 된 후 다시 지상에 내려와 지상인들의 농신이 된다. 이런 이동 과정속에서 이 작품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살필 수 있었다. 인간애적인 현실주의적 사고관은 「세경본풀이」 담당층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자청비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문예적 가치 또한 살필 수 있었다.

셋째는 이 작품의 주제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눠 살폈다.

표면적 주제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였다. 두 남녀가 당시 지배질서인 결혼 당사자의 혼인을 무시하는 결혼관을 끝까지 거부했기에 그 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 이면적 주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날려는 인간해방이다. 두 남녀의 사랑을 표면적 주제로 삼고, 이면적으로는 인간해방을 주제로 삼을

수 있었기에 이 작품은 고대 문학의 시원이면서도 현재에까지 향유되었고, 또 그 향유층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는 자청비와 제주여성의 관련성을 살폈다.

「세경본풀이」는 타지역에서보다는 제주도에서 불려진 신화이다. 따라서 이 구비서사는 제주도와 먼저 관련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신화의 주체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사는 여성들과 이 작품의 관련성을 찾았다.

제주 여성의 모습과 자청비의 모습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제주 여성들의 공동작으로 자청비가 탄생했고 이로 인해 「세경본풀이」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즉, 제주여성이 문학적 형상화로 다시 태어난 자청비였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재미와 함께 교훈을 준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작품의 문예적 가치는 충분하다 하겠지만 무속신화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학성을 논의 전개를 통해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향후 다른 무속신화에 대해서도 문예적 가치를 찾는 연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무속신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찾는 것 또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미 문학적 결구를 이루고 있는 무속신화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대하면서 이 논고를 마치려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赤松智城, 秋葉隆(1937), 「朝鮮 巫俗の 研究」, 조선총독부.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한상수(1980),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

2. 단행본

- 강등학외(2000), 「한국 구비 문학의 이해」, 월인.
곽정식(1999), 「구비문학의 이해」, 신지서원.
김기창(1992),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김병국외(1994), 「春香傳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 학술 자료사.
김대숙(1994), “구비 열녀 설화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 9집, 고전문학연구회.
김명길(1988), “한국 민속극에 나타난 <말뚝이型> 人物研究”, 「한양어문」, 6집.
김재용(1984), “제주도신화의 서사구조에 대한 관계”, 「국어국문학연구」, 10집.
김열규(1982),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_____ (2000), 「한국의 신화」, 일조각.
김열규외 (1983), 「민담학개론」, 일조각.
김영일외 (1993), 「한국문학형태론」, 일조각.
김용숙(1990), 「한국 여속사」, 민음사.
김옥동(1994), 「탈춤의 미학」, 현암사.
김인회(1982), 「한국 무속의 종합적인 고찰」, 천풍.
김장동(1996), 「우리 소설이란 어떤 것인가」, 태학사.
김현선(1994), 「한국의 창세 신화: 무가로 보는 우리의 신화」, 길벗.
김화경(1987),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_____ (1986),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_____ (1982), “세경본풀이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학보」, 28집.
민속원(2001), 「한국 민속학 새로 읽기」.
박경신(1986),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집.

- 박병욱외(1988),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 반건넙(1985), 「通過儀禮」, 진경수역, 을유문화사.
- 사재동(1995),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중앙문화사.
- 서대석(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 _____ (1985), 「한국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 서종문(1982), 「19세기 한국문학의 성격」,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 석경징외(1999), 「서술이론과 문학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기열(1988), 「한국 설화의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 송효섭(1999),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 안성수(2001),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백록어문」, 17집.
- 왕 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 유종호(1989),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이두현(1992),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 이부영(1989), 「제주무속의 몇 가지 特徵과 分析心理學的 試考」, 「제주도연구」, 제 6집.
- 이수자(1990),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제 11집.
- 이월영외(2001), 「여성문학의 어제와 오늘」, 태학사.
- 이재인외(1996),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 장덕순외(1999),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_____ (1995), 「한국 설화 문학 연구」, 박이정.
- 장주근(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 세시풍속, 통과례, 전승연희」.
- _____ (2001), 「제주 여성 문화」, 제주도 문화자료 총서.
- 조 광(1982),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조남현(1990), 「小說原論」, 고려원.
- 조동일외(1994), 「韓國 文學 講義」, 길벗.
-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 _____ (1980), 「문학연구 방법」, 지식산업사.
- _____ (1981),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 _____ (1983), 「우리 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 _____ (1983), 「한국문학통사 II,III」, 지식산업사.
- _____ (1998),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 좌혜경(1998), 「즈칭비, 문화적 여웅여성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집.

- 주강현(1992),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 진성기(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 진성기(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 최길성(1994), 「한국 민간 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최운식(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 한상복(1982), 「한국인과 한국문화-인류학적 접근」, 尋雪堂.
- 한용환(2000),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 _____ (1992), 「소설학사전」, 고려원.
- 한우근(1985),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 한창훈(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제 15집.
- _____ (2001), “濟州道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백록어문」, 제 17집.
- 현길연(1995), “물(水)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인문학적 인식- 제주 설화를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제 12집.
-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_____ (1986), 「제주도 무속 신화 연구」, 집문당.
- 황석자편(1992), 「현대문체로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 황패강외(2000),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3. 학위논문



- 강정식(1988),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 김대숙(1988), “여인 발복설화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무병(1984),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_____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서대석(1979), “敍事巫歌 「帝釋本풀이」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성수(1989),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배따라기」, 「운수 좋은 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교임(1995), “여성 영웅 신화 연구-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 기호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현희(1989), “세경본풀이의 연구-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주영자(2001), “박영준의 「종각」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간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승환(1992), “내 북에 산다계 설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5), “최고운설화의 양상과 소설화 과정”,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현원필(1999),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연구- 제주 서사무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Structure and literatural meaning of
『SEGYEONG-BONPURI』

Choi, Young-so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w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literary approach to shamanistic mythology in terms of the aesthetic value as verbal art as well as in terms of folklore, sociology, and mythology, by examining the literary value in the text of 『SEGYEONG-BONPURI』 among the myths of Jeju island.

To attain this purpose, first, the text was analysed in terms of structuralism which can get the precise analysed data, centering on character, space, theme, jeju women and Jacheongbi of the text.

In chapter two, the basic version was drawn by analysing the eight different versions of 『SEGYEONG-BONPURI』. With this basic version, each different vers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b-types and compared one another. In addition, since this work is an orally narrated o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ons in the different versions which show the singers' personality and

creativity were analysed, and the results were evaluated.

In chapter thre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text were found out by analysing and summarizing it by means of structural methods. In doing so, it was found out that this text was framed with double structures,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one. In addition, by using the basic frame of the binominal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each structures, the Jacheongbi's desires and conflicts shown in both structures were analysed, and both the meanings and the techniques in the text were examined together.

In chapter four, the literary value of the work were evaluated. The evaluation was achieved in terms of character, space, theme, Jeju women and Jacheongbi. In character, the important third character was given an emphasis, and in space, it was examined that the meaning implied in the change of space shows the realistic world view of the transmitters and the singers. The theme was discussed in terms of the dualism as shown in the structure of the text and was divided into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one.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considering Jeju women have enjoyed the song, they were Jacheongbi who were shaped literarily, by finding out the common elements between Jeju women and Jachengbi.

In chapter five, all the discussions (or subjects) were summarized and arranged, and then were came to the conclus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